

100년 전 한국문학 세계화의 꿈*

- 개신교선교사 게일(James Scarth Gale)과 한국의
고전세계 -

이 상 현**

차 례

- | | |
|---|---|
| 1. 미 의회도서관에 남겨진 한 개신
교 선교사의 자취 | 3. 한국문명의 발견과 『구운몽』 영역본
: 미 의회도서관 소장 게일의 서한
문과 미완의 한국문학 세계화 기획 |
| 2. ‘한국문학부재론’을 넘어 : 미 의
회도서관 소장 경판본 고소설과
한국문학 세계화 기획의 연원 | 4. 한 노년 선교사의 고해성사와 동양
의 희랍문명 |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1019181) ; 또한 이 논문의 초고는 2017년 6월 17일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문학회 창립 40주년 학술대회 “한국문학과 세계문학”에서 발표된 것임을 밝힌다. 당일 날 토론을 담당해주시고 유익한 조언을 주신 목포해양대 김성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더불어 2017년 6월 24일 고려대에서 개최된 북미지역 아시아학회(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in Asia)에서 『게일 유고』를 주제로 한 로스 킹(Ross King), 이향순, 빈첸자 두르소(Vincenza DURSO), 다니엘 피퍼(Daniel Pieper) 선생님의 발표 그리고 7월 10일 부산대에서 개최한 콜로키엄(“개항기 한국의 학술공화국을 말하다” 14강)에서 그레고리 이반(Gregory N. Evon) 선생님의 강연이 큰 도움을 제공해 준 사실도 주석 상으로 밝히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부산대학교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한국 개신교선교사 게일(James Scarth Gale)의 한국문학 세계화 기획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고는 ‘한국문학의 세계화 기획’ 그 자체 역시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형성된 역사적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게일이 미 의회도서관에 남긴 흔적을 주목했다. 이 흔적을 고찰하며 오늘날의 상황과는 다른 게일의 한국문학 세계화 기획이 놓여 있던 당대 역사와 그 현장, 그 일면을 묘사해보고자 했다. 미 의회도서관에 소장된 경판본 고소설과 게일의 서한문은 캐나다 토론토대 토마스피셔 희귀본장서실(Thomas Fisher Rare Book Library) 『게일 유고(*James Scarth Gale Papers*)』에 집성된 한국고전 번역물의 존재이유를 말해준다. 비록 이는 당시의 여건 상 이루어질 수 없는 미완의 기획이었지만, 동아시아 속 한국문명과 한국문학을 세계에 전하고자 한 게일의 소망을 증언해주기 때문이다.

미 의회도서관에 소장된 경판본 고소설은 『게일 유고』에 소장된 게일 고소설 번역본의 저본이었다. 더불어 한국의 한문전적과 함께 일종의 보존해야 될 문화유산 또한 근대화 이전 변모되기 이전 ‘옛 조선의 문학’이라는 함의를 지니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게일이 활자본이 아니라 경판본을 번역저본으로 선택하고, 이를 한 편의 문학작품이라는 관점에서 번역하고자 한 지향점이 형성된 근본적 계기를 살폈다. 그것은 고소설을 비롯한 한국문화에 내재된 한문전통을 ‘중국적이며 외래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동아시아 속에서 공유한 고전세계이자 고유한 문명으로 인식하는 게일의 새로운 모습이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그의 한국문학 세계화 기획에 있어 중요한 하나의 형성 계기였다. 미 의회도서관에 소장된 게일의 서한문을 통해, 『게일 유고』에 책자형태로 묶여진 원고들이 해외출판을 위해 게일이 예비한 번역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게일의 한국문학 세계화 기획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미완의 기획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의 기획 속에는 중국과 구별되

는 한국문명에 대한 그의 발견 그리고 동양의 희랍이라고 명명했던 한국 고전의 가능성과 미래가 분명히 존재했다.

주제어: 게일(James Scarth Gale), 한국문학 세계화 기획, 『게일 유고(James Scarth Gale Paper)』, 미 의회도서관, 한국문학부재론, 동양의 희랍, 『구운몽』 영역본

1. 미 의회도서관에 남겨진 한 개신교 선교사의 자취

한국개신교 선교사 게일(James Scarth Gale, 1863-1937)과 ‘한국문학의 세계화’라는 주제를 논하고자 할 때, 아무래도 1922년 영미권에서 출판된 그의 『구운몽』 영역본을 우선적으로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¹⁾ 하지만 아

1) Kim Man-Choong, J. S. Gale trans., *The Cloud Dream of the Nine: A Korean novel, story of the times of the Tangs of China about 840 A.D.*, London: Daniel O'Connor, 1922; 오늘날까지 그가 남긴 이 번역본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이 점은 분명히 진지하게 고찰해볼 만한 중요한 연구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게일의 『구운몽』 영역본을 중심으로 한국문학 세계화의 가능성을 성찰한 의미 있는 논고로는 배수찬, 『한국문학은 세계화될 수 있는가: 제임스 게일, *The Cloud Dream of the Nine*』, 『세계화 시대의 인문학 책읽기』, 아포리아, 2015를 들 수 있다. 한국문학회의 학술기획과 이 글이 본고의 작성에 있어 많은 영감과 시사점을 제공해 준 사실을 먼저 밝힌다.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황호덕·이상현, 『개념과 역사 근대 한국의 이중어사전』1, 박문사, 2012; 이상현, 『게일의 한국고소설 번역과 그 통국가적 맥락』, 부산대 고전번역학 센터 편, 『한국 고전번역학의 구성과 모색』 2, 점필재, 2015[初出: *Comparative Korean Studies* 22(1), 국제비교한국학회, 2014]; 이상현, 『한국 고전번역가의 초상, 게일의 고전학 담론과 고소설 번역의 지평』, 소명출판, 2013; 이상현·윤설희, 『주변부 고전의 번역과 횡단 1, 외국인의 한국시가 담론 연구』, 역락, 2017)는 게일의 고전번역 및 한국학이 놓여 있던 통국가성 및 학술사의 문제 혹은 당시 한국어, 한국 고전이 대면한 근대성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기에, 게일 한국문학번역의 궁극적인 목표인 ‘한국문학 세계화 기획’ 그 자체에 대한 성찰이 매우 결여되어 있었다. 이러한 성찰의 부재로 인해, 1920년대 이후 게일의 한국학과 번역

직까지도 그 전체적인 자료적 실상이 정리되지 못한 게일의 유물들 특히, 캐나다 토론토대 토마스피셔 희귀본장서실(Thomas Fisher Rare Book Library)의 『게일 유고(James Scarth Gale Papers)』에 남겨져 있는 그의 미간행 한국고전 번역물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게일의 『구운몽』 번역이라는 사건 자체가 그의 기획 전반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²⁾ 오히려 그가 방대한 한국문학 번역물을 남겨 놓았지만, 유일한 해외출판의 성공사례가 겨우 『구운몽』 영역본 한 권이었다는 현실을 대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이 논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성찰해야 될 바는 다른 곳에 있다. 그것은 게일이 『구운몽』 영역본 한 권만을 겨우 출판할 수 있었을 만큼, 당시 한국문학의 해외출판이 그만큼 어려웠던 사정이자 현실이다. 이렇듯 미완의 기획이자 꿈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게일의 기획은 당시 한국문학이 놓여있었던 분명한 역사적 실상이었던 셈이다.

이 역사적 현장과 실상을 우리는 되새겨보며 복원해볼 수 없는 것일까? 다행히 미국 워싱턴 DC 미 의회도서관에는 이를 살펴볼 게일의 단편적인 흔적이 존재한다. 미 의회도서관에는 과거 그가 한국개신교의 문서선교 사업의 결과물들과 함께 보냈던 312권의 고서, 33종의 탁본이 소

실천이 매우 개괄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었으며 그가 한국을 떠난 후의 행적 또한 『게일 유고』 Box 9에 수록된 1927-1937년 사이 그의 저술과 번역물이 포괄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게일의 한국문학 세계화 기획이라는 방대한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최대한 활용하여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 시론적 탐색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논의에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한 중요한 자료를 활용할 경우 기존 선행연구로는 결코 읽을 수 없는 그 한계점이자 본고의 변별성을 전체 논지의 훼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주석 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 2) 또한 게일의 다수의 한국문학에 단편적인 번역사례로도 이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비록 게일의 미간행 유고를 포함한 범위가 아니라 게일의 출판물이 중심적인 것이었지만, 리처드 러트의 선구적인 연구업적(R. Rutt, *James Scarth Gale and his History of Korean People*, Seoul : the Royal Asiatic Society, 1972)을 통해 게일 번역한 한국문학의 전체상은 이미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장되어 있기 때문이다.³⁾ 게일이 근 40여년에 이르는 자신의 한국에서 삶을 회고하며 남긴 아래와 같은 글(『回顧四十年』, 『新民』 26, 1927. 6)을 상기해본다면, 이 고서와 탁본 그 자체는 그가 시도했던 ‘한국문학 세계화 기획’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한 일은 朝鮮의 文學을 不充實하게 나마 研究해 보았고 따라서 이것을 西洋에 소개한 것입니다. 米國圖書館에는 내가 聚集하여 보낸 圃隱全集 外 數千卷의 文學書類가 珍藏되어 있습니다.⁴⁾

최근 해외의 한국학자, 로스 킹(Ross King)은 게일의 짧은 증언에 담긴 그의 행적을 복원해 줄 수 있는 새로운 활로를 개척했다. 그는 미 의회 도서관에 소장된 게일의 자취들과 『게일 유고』의 소중한 연결고리를 밝혀냈다. 예컨대, 『게일 유고』에 소장된 게일의 미간행 한국고전 번역물이 다수 담긴 『일지(Diary)』의 한 권(XI권)이 미 의회도서관에도 남겨져 있는 모습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게일 유고』 소재 게일의 도서관구입목록 그리고 미 의회 도서관 한문전적 수집을 주도했던 인물, 저

3) Sonya Lee, “The Korean Collection in the Library of Congress,” *Journal of East Asian Libraries* 142(1), 2007, p. 38 ; 미 의회도서관 한국고서 현황은 한국서지학회의 조사 결과, 아시아부(Asian Division)에 409종 2,856책, 법률도서관(Law Library)에 13종 14책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국서지학회,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미국의회도서관 소장 한국본 목록』, 한국서지학회, 1994). 하지만 최근 이해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재조사 작업결과, 한국고서 120종 378책이 추가로 소장되어 있음이 밝혀졌다(국립중앙도서관 편, 『국외소재 한국고문헌 수집 성과와 과제』, 국립중앙도서관, 2009, 207-210면 ; 이해은, 『북미소재 한국고서에 관하여: 소장현황과 활용방안』, 『열상고전연구』36, 열상고전연구회, 2012, 72-74면).

4) 奇一, 『回顧四十年』, 『新民』26, 1927. 6, 12면 ; 띄어쓰기 및 강조는 인용자의 것 ; 이 자료는 주석 1)의 기존 논의 속에서 게일이 한국문학 연구와 번역을 일생의 중요한 과제로 삼았던 모습, 개신교와 관련된 종교 사업이 아니라 근대의 세속종교인 민족과 관련된 자신의 활동을 보람으로 여겼던 측면만이 너무 강조되었다. 게일의 이 진술 자체를 복원하는 바를 상상하지는 못했다.

명한 ‘농식물학자’이자 아마추어 중국학자였던 스윙글(Walter T. Swingle, 1871~1952)과 주고받았던 서한 자료를 검토하며, 게일이 수행한 한국고서 정리사업의 윤곽을 상당량 복원했다.⁵⁾

로스 킹은 또한 미 의회도서관에 소장된 게일의 중요한 자료를 함께 소개해 주었다. 그것은 게일의 서한 및 도서목록, 최치원(崔致遠, 857~?) · 이규보(李奎報, 1168~1241) · 이제현(李齊賢, 1287~1367) · 최립(崔立, 1539~1612) 문집의 영문 목차 및 색인 등이며, 특히 오늘날의 입장에서 본다면 영어로 작성된 ‘한국 문집 중간 해제’라고도 평가할 수도 있는 『서적 목록(A Catalogue of Korean Literature : One Thousand of the Most Noted Works(6000 volumes))』



▲ 『서적목록』의 앞 표지

(1927. 1. 31)은 게일이 남긴 귀중한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그가 미 의회도서관에 전하고자 했던 과거 한국 유가지식층이 남긴 ‘한국문학의 보고’였던 셈이며, 그가 세계에 소개하고 싶었던 한국문학 전체의 열개였던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이렇듯 미 의회도서관에 남겨진 게일의 한국문학 세계화 기획을 논해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게일이 남긴 이러한 유물 속에 담긴 그의 기획 전반을 재구·복원해보는 작업은 후일의 연구과제로 남겨 놓고자 한다. 필자의 부족한 역량 또한 한 편의 논문분량만으로는 이를

5) R. King, “James Scarth Gale, Korean Literature in Hanmun, and Korean Books,”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편, 『해외 한국본 고문헌 자료의 탐색과 검토』, 삼경문화사, 2012, pp.247~261 ; 주석 5-6)의 로스 킹이 최근 내놓은 업적에 관한 개괄적인 소개는 이상현, 윤설희, 앞의 책, 285~290쪽에 거론된 바 있다. 하지만 게일이 미 의회도서관에 남겨 놓은 자료가 게일의 한국문학 세계화 기획 전체의 열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매우 중요한 자료라는 사실을 주목하지는 못했다. 무엇보다 이를 살펴볼 단초들이 로스 킹의 논문 속에 있었던 점도 파악하지 못했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⁶⁾ 다만, 이 글에서는 ‘한국문학 세계화 기획’ 그 자체 역시 어떠한 특정한 시기의 역사적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미 의회도서관에 남겨진 게일의 흔적과 그의 다른 유물들을 겹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의 상황과는 많이 달랐던 게일의 한국문학 세계화 기획이 놓여 있던 당대 역사와 그 현장, 그 일면을 드러내보고자 한다.

2. ‘한국문학부재론’을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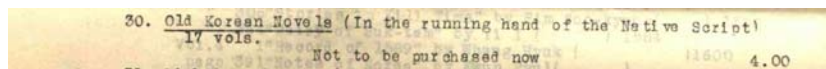
: 미 의회도서관 소장 경판본 고소설과 한국문학 세계화 기획의 연원

① 캐나다 토론토대 토마스피서 희귀본장서실 소장 『게일 유고』 Box 11에는 게일이 남겨놓은 여러 도서목록이 남겨져 있다.⁷⁾ 이 중에서 그

6) 필자가 게일의 한국문학 세계화 기획을 다루면서 그의 번역물을 감히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이는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게일의 한국문학 세계화 기획을 복원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업적의 존재, 즉, 로스 킹, 박시내가 함께 출판한 저서 때문이다.(Ross King & Park Sinae ed. *Score One for the Dancing Girl, and Other Selections from the Kimun ch'onghwa : A Story Collection from 19th Century Korea*,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16) 게일의 『기문총화』 소재 야담에 대한 번역물을 집성한 이 저술은, 활자화되지 못한 게일의 육필본 번역물의 재구 및 원전과의 대비검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한국문학번역자라는 입장에서 게일의 미완성 번역부분 혹은 게일의 시대와 달라진 오늘날의 상황을 감안하여 재번역 작업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게일의 『호동서락기』 영역본을 번역자의 입장에서 재구한 러트의 업적(R. Rutt, “Footprints of the wildgoose,” 『民族文化論叢 : 驚山李殷相博士古稀記念論文集』, 삼중당, 1973)을 제외한다면 거의 유일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7) 이 전체 서목 자체를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 역시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자료들은 게일이 서울에 거주하며 입수했던 문헌이기 때문에, 당시 한국도서의 출판유통문화를 엿볼 수 있다. 예컨대, 『게일 유고』 소재 서목에는 게일이 한남서림에서 구입한 서목, 경신학교 및 조선기독교 대학(연세대학교의 전신) 소장 도서 목록, 당시의 장서가였던 김도희, 트롤롭 주교로부터 받은 서목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 미 의회도서관에 보낸 서목은 총 4종이다. 해당문건의 날짜는 1922년 4월 1일, 1925년 1월 7일, 1926년 11월 29일, 1927년 3월 24일로 기록되어 있다. 미 의회도서관 소장 한국 전적에 관한 조사 작업에서 이러한 게일의 서목이 참조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게일의 서목과 서지조사 결과물, 미 의회도서관 소장현황을 상호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작업은 그 결과를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없기에 실제 해당 서적에 대한 도서관의 소장 상황을 사전에 어느 정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많은 노고와 오랜 시간을 요청하는 작업인 셈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작업의 가능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는 있었다. 게일이 마지막으로 송부한 서한자료 즉, 1927년 3월 24일에 보낸 도서목록에 담겨있는 다음과 같은 기록 때문이다.⁸⁾



게일은 ‘한국에서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는[한글 초서체의] 한국 고소설 17권을 보냈다’고 기록해 놓았다. 이에 미 의회도서관 아시아부 한국과 수석사서 소냐 리(閔成義, Sonya Sungeui Lee) 선생님께 고소설의 소장여부를 물어보았다. 소냐 리 선생님은 감사하게도 이를 찾아 보셨고, 5종의 고소설 판본(<홍길동전> 2종, <황운전> 1종, <홍부전> 1종, <남정팔난기> 1종)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다. 물론 5종의 고소설 판본은 오늘날 한국에서도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자료이다. 즉, 자료의 희귀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귀중한 것이라고는 평가할 수 없다. 판본을 말한다면, <경판 21장본 홍길동전>, <경판 22장본 황운전>, <경판 17장본 남정팔난기>, <경판 20장본 홍부전>으로, 오늘날 『영인 고소설

8) J. S. Gale, “List of Korean Book-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C. Mar. 24th, 1927(from J. S. Gale),” 『게일 유고(James Scarth Gale Papers)』 Box 11.



▲ 미의회 도서관 소장
(경판 20장본 흥부전)
마지막 면

판각본 전집』을 통해서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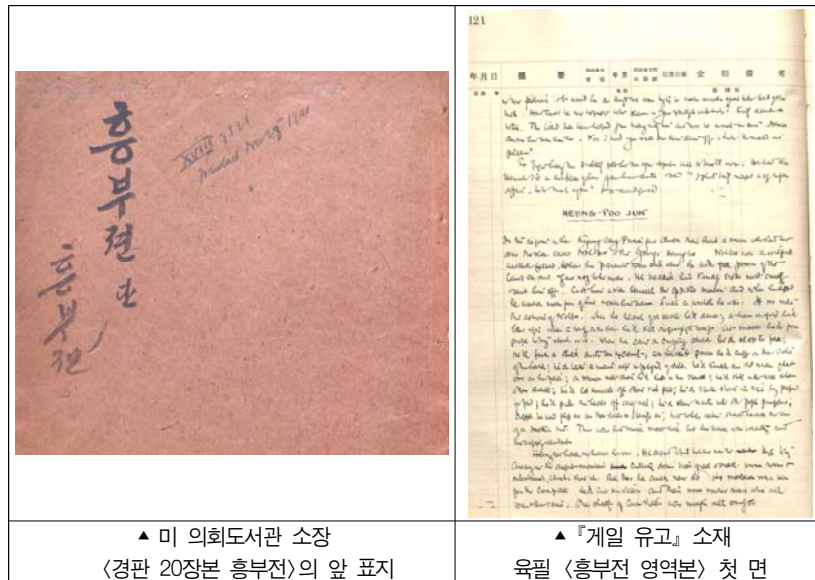
하지만 이 판본들은 지금까지도 그 기증자와 소장시기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자료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판 20장본 흥부전>(송동본)의 “흥부전 단”이라고 적혀있는 표지는, 기증자와 그 시기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답변을 제공해준다. 이 표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지』 18권 121면”에 수록된 <흥부전 영역본>의 서지정보와 그 번역시기를 기록한 게일의 필적이 보인다. 이 메모와 같이, 『게일 유고』 소재 게일의 『일지』 18권 121면에

는 미간행 육필 <흥부전> 영역본이 있다. 즉, 미 의회도서관 소장 <경판 20장본 흥부전>은 게일이 <흥부전>을 번역할 때 활용했던 저본이었던 셈이다.¹⁰⁾ 이는 ‘국내 미소장 한국고문헌 자료’는 아니지만, 게일의 한국문학 세계화 기획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흔적이 남겨져 있는 자료이다.

왜냐하면 경판본 고소설을 번역하여 출판하고자 했던 1921년경 게일의 기획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당시 이러한 고소설 번역 출판의 기획이 게일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독자적인 성과는 아니었다. 19세기 말 한국의 문호개방 이후 서울에 거주하던 외국인들은 고소설을 쉽게 접촉할 수 있었다. 고소설은 한국에 관한 민족지 서술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였다. 또한 한글 학습 혹은 한글 연구의 대상이자 한국인의

9) 이 판본들에 대한 서지사항을 점검해주시고 큰 조언을 주신 유춘동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10) 게일이 남겨놓은 흔적 또한 저본대비, 게일 육필 영역본 전문은 이상현, 이진숙, 『『게일 유고』 소재 한국고전번역물(2) - 게일의 미간행 육필 <흥부전 영역본>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48, 열상고전연구회, 2015를 참조.



생활어를 엿볼 수 있는 문헌으로 남겨진 자료였기에, 그들의 관심은 더욱 더 지대할 수밖에 없었다. 이 자료에 대한 해독력 혹은 번역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 1865-1935)과 같은 예외적인 인물은 개일과 충분히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시기 고소설 원전에 대한 매우 깊이 있는 독해수준 및 번역수준을 보여준다.¹¹⁾

그렇지만 19세기 말과 1920년대라는 번역 및 수집 시기의 차이점은 이 외국인들과 미 의회도서관 및 『개일 유고』에 남겨진 개일의 인식의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무엇보다 다른 외국인들과 달리, 개일에게는 하나의 기획, ‘한국고소설 작품’을 해외에서 출판하고자 한 ‘한국문

11) 주요입론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고찰은 아래의 논고들을 참조. 이상현, 『알렌 『백학선전』 영역본 연구』, *Comparative Korean Studies* 20, 국제비교한국학회, 2012; 이상현, 이은령, 『19세기 말 고소설 유통의 전환과 ‘민족지’로서의 고소설』, 『비교문학』 59, 한국비교문학학회, 2013; 이상현, 이진숙, 장정아, 『경판본 〈홍부전〉의 두 가지 번역지평』, 『열상고전연구』 47, 열상고전연구회, 2015.

학 세계화'의 지향점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19세기 말 외국인들의 한국문학론을 간략하게나마 언급할 필요가 있다.¹²⁾ 그들은 한국 한문학에는 한국 민족문화의 고유성이 담겨 있지 않다고 인식했다. 한자, 한문은 한국인의 구어, 한글과 대비되는 '중국=외래성'의 상징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눈에 비친 19세기 말 고소설의 위상 역시 마찬가지였다. 오늘날과 같은 차원의 고전 혹은 정전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문학작품에 미달된 한국인의 '설화'이자 매우 '저급한 대중적인 독서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인식의 저변에는, '모어=구어' 중심의 언어내셔널리즘과 근대적 문학개념이 놓여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에는 한국민족 문화의 고유성과 수준 높은 문예미를 드러내주는 문학작품이 없다는 논리, 요컨대 '한국에는 문학이 없다'는 '한국문학부재론'을 이야기했다.

게일이 남겨 놓은 자취 속에는 이러한 외국인의 '한국문학부재론'을 넘어선 지향점이 보인다. 이를 간추려 보면, 먼저 그가 한적뿐만 아니라 국문고소설을 포괄하여 미 의회도서관에 송부한 점 그리고 여기서 고소설을 당시 한국에서 소멸되어가는 일종의 '보존'해야 될 문화유산으로 기록한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그가 <춘향전>을 제외한다면, 1920년도에도 널리 유통되었을 이해조(李海朝, 1869-1927)의 판소리 산정 고소설이 아니라 '경판본'을 번역저본으로 선정한 사실과도 긴밀히 관련된다. 더불어 이 작품들을 '옛 조선의 소설들'이라고 명명한 점 역시 주목된다. 비록 그 형성의 부분적인 단초는 그의 초기 저술 속에서도 찾아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모습 그 자체는 1910년대 이전 그의 논저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부분이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고소설을 옛 조선의 문학작품으로 여기며 한편의 문학작품이라는 시각에서 번역하고자 한 시도

12) 이러한 외국인들의 서구중심주의적인 인식과 한국문학부재론에 대해서는 주석 11의 논고와 함께, 김성철의 논문(『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서양인들의 한국 문학 인식 과정에서 드러나는 서구 중심적 시각과 번역태도』, 『우리文學研究』 39, 우리문화회, 2013)과 이상현, 윤설희, 앞의 책 1부를 참조.

그 자체는 매우 각별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 속에는 고소설에 내재된 한문전통에 대한 그의 인식이 전환된 모습이 전제되어 있다. 이는 게일의 한국문학 세계화 기획의 형성과정을 엿볼 수 있는 대상이자 이를 역사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초점, 오늘날과는 결코 동일하지 않았던 한국어 문학이 놓여 있던 당시의 문화생태를 엿볼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¹³⁾

② 물론 게일 역시 그의 초기저술(*Korean Sketches*(1898))에서 “한국의 문학[인용자: 유가 지식층의 한문학]은 죽어 있는 문자이다. 그러므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흥미 있는 분야는 결국 문자를 지니지 못한 머슴의 신앙과 전통”¹⁴⁾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 역시 한국인의 구어이자 구술문화의 가치를 한국의 문자문화 즉, 한문학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인식하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다. 또한 그는 1902년에도 그가 특파원으로 근무했던 해외저널(*The North China Herald*)에 “한국은 신문과 소설이 없는 땅”¹⁵⁾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즉, 19세기 말 또한 20세기 초

13)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기존논의에서 검토되지 못했던 측면이며 고소설/고전시가에 내재된 바, 게일의 한국 한문전통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고소설 장르 및 고시가 장르에 대한 인식변화는 각각 이상현, 『게일의 한국고소설 번역과 그 통국가적 맥락』, *Comparative Korean Studies* 22(1), 국제비교한국학회, 2014 및 이상현, 윤설희 앞의 책, 4-5장을 참조하도록 한다. 더불어 이렇듯 게일이 경판본 고소설을 번역저본으로 선택한 이유와 관련하여, 한국인에게도 <춘향전>의 원형 혹은 원전 <춘향전>의 형상이 출현하고 이해조의 판소리 산정고소설과 기존 고소설을 구분하는 일종의 판본대비를 예비하는 인식이 출현하는 양상을 겹쳐서 탐구한 논문(이상현, 『「춘향전」의 번역과 민족성의 재현 : 이광수의 「춘향」(1925-1926)을 읽을 또 다른 문맥, 게일·호소이 하지메의 고소설 번역담론』, 『개념과 소통』 16, 한림과학원, 2015, 136-155면)을 함께 참조하도록 한다.

14) J. S. Gale, 장문평 옮김, 『코리안 스케치』, 현암사, 1977, 70면(*Korean Sketches* (1898))

15) J. S. Gale, “Korean Literature,” 『朝鮮筆景』(1912), p. 35(『게일 유고』) ; Esson Third, “Corean Literature,” *The North China Herald and Supreme Court & Consular Gazette*, 1902. 6.11

게일의 한국문학관을 보면, 그 역시 다른 서양인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문학부재론’을 공유하고 있었다.

한국문학을 서구문학과 다른 매우 낮은 것이지만 대등한 하나의 문학으로 수용하는 것, 이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사실 한국의 문학사가(文學史家)들이 고민했던 지점과도 맞닿아 있다. 왜냐하면 이는 기본적으로 본다면 한국문학의 개념 및 범주에 한문학 혹은 한문전통을 포괄하는 문제¹⁶⁾이며, 또한 국문고소설 및 시가에 투영된 한문전통을 외래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게일은 한국어문학이라는 실체를 대면하게 될 때, 이러한 문제적 실상을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했다. 그 역시 애초부터 한국어, 한국문학에서 차지하는 한자·한문의 위상을 잘 이해했고 이 현상 그 자체를 간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이후 그가 지속적으로 보여준 관점, 한국문학의 본류이자 정수가 한문 고전이라는 관점의 원형이 된 셈이다.

일례로, 그가 한국어 회화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무렵인 1891~1892년 사이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엘린우드(Frank Field Ellinwood, 1826~1908) 총무에게 보낸 서한을 들 수 있다. 그는 그의 한국어 학습에 있어 한문 고전 학습을 늘 병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렸으며, 이러한 학습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장했다.¹⁷⁾ 그렇지만 한국의 언어와 문헌을 읽고 이를 외국어로 논해야 했던 서양의 동양학자와 한국의 개신교 선

16) 이에 대한 개괄적이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는 임형택의 논문(『한국 근대의 “국문학”과 문학사: 1930년대 조윤제(趙潤濟)와 김태준(金台俊)의 조선문학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46, 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205-214면)을 참조했다. 또한 한글/한자가 조선/非조선의 변별을 확보할 뿐, 조선문학/非조선문학의 구별할 수 없다는 점 더불어 이는 “한글=조선적임”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는 여전히 현재적이라는 문제제기는 류준필의 논문(『한문학사 서술과 ‘문자’문제: 魯迅과 金台俊』, 『동아시아의 자국학과 자국문학사 인식』, 소명, 2013, 389~408면[初出: 『김태준 『조선한문학사』와 노신 『한문학사강요』의 문자문제』, 『국제고려학회』 창간호, 국제고려학회, 1999])을 참조.

17) 이상현, 윤설희, 앞의 책, 233-239면.

교사는 그 입장과 처지가 근본적으로 달랐다. 무엇보다 그들은 다른 외국인들과는 달리 한국어로 한국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독특한 상황에 개입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학술적인 차원에서 외국어로 논하는 외국인과는 그 사정이 전혀 달랐던 셈이다. 예컨대, 게일에게 한국문학은 학술적으로 논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가 공부하고 익혀야 할 대상이며 실천적으로 활용해야 할 대상이기도 했다. 나아가 그들에게 한국어는 생성과정 중인 언어이기도 했다. 게일의 고급학술어이자 고전어인 한문학습의 지향점은 어디까지나 한국인에게 성서의 복음을 전할 한국어[더 엄밀히 말한다면 새로운 한국어 문장전법]를 창출하는 곳에 있었다.

1893년 원산으로 선교지를 옮긴 후 약 2개월이 지난 무렵이자 『천로역정』 및 성서를 번역하던 시기, 그는 『번역의 원칙(The Principle of Translation)』이라는 미간행 논저 한 편을 남겼다. 물론 게일의 글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곱씹어볼만한 훌륭한 번역철학[혹은 이론]을 발견할 수는 없다. 그의 번역론은 그만큼 매우 통념적인 차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그가 번역에 임했던 기본적인 입장과 관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¹⁸⁾ 그에게 번역은 『웹스터 사전』의 풀이처럼 “감각(sense)을 다른 나라 말로 새기는” 작업이다. 또한 게일은 “감각”의 개념 역시 “어휘는 끊임없이 변화할지라도 ‘감각은 불변의 본질(The sense is the constant quality)’”이라는 이 사전 속의 정의를 취했다. 따라서 게일은 번역자가 두 개의 언어에 통달해야 하며 어떤 특정한 ‘감각’에 해당되는 어휘의 지식을 충분히 지녀야함을 강조했다. 여기서 ‘감각’은 이렇듯 개별 어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어 사이의 조화 더 나아가 한국어의 감각, 영어의 감각, 라틴어의 감각과 같이 큰 범주이자 해당 언어의 개별성을 함께 포괄하는 것이었다. 게일은 ‘축자역’을 매우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원

18) J. S. Gale, 유영식 편역, 『번역의 원칙』, 『착훈목자 : 게일의 삶과 선교』 2, 도서출판 진흥, 2013.

천언어와 수용언어 단어 사이의 공통점을 인식하는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번역의 1원칙) 하지만 번역 실천 속에서 이러한 정황만을 대면하지 않음을 그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 예컨대, 사전이 풀이해주는 단어와 단어의 관계로 표현되지 않는 바가 있는 경우 혹은 두 언어 사이의 공통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 그에게 이상적인 번역은 결코 해당 언어권 독자에게 낯설고 이질적인 번역은 아니었다. 오히려 원어민이 그 감각을 인식할 수 있는 언어, 원어민의 풍습에 충실하며, 해당 언어권의 독자를 배려한 번역을 핵심적 원리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다.(번역의 원칙 2-4)¹⁹⁾

이러한 그의 번역 원칙에 의거하자면, 서구어로 된 성서의 표현에 담겨져 있는 감각은 독자적인 차원에서 한국어로 옮겨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었다. 한국인이 이해하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한국어다운 언어표현으로 번역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어는 그들이 번역하고자 하는 바를 충족시켜줄 많은 언어표현을 지닌 언어였을까? 게일은 이 점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물론 “동양인들에게는 서양의 현대 발명품은 없다. 따라서 동양인들은 그 발명품을 보면” 그 물건의 새로운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동/서양인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이와는 사정이 달랐다. 따라서 “성서 번역자들이나 기독교 문건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어떤 생각도 표현할 수 있는 기존의 어휘가 조선어에 충분히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한 편으로는 매우 타당한 것이었다. 그가 일생생활을 통해 접하는 한국인의 말 이외에도 한국에는 수많은 문헌들이 축적되어 있었으며 그 속에는 수많은 언어표현이 잠재·산적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시기 게일은 선교사들의 번역이 어디까지나 일상생활 사용되는 한국인의 구어에 일치되어야 함을

19) 위의 글 318-323면; 이 이외에도 “간결하고 명확히 번역할 것(5원칙)”,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6원칙)”를 첨가했다.

매우 강조했다.²⁰⁾

그렇지만 후일 게일이 수행한 문서선교 사업의 모습을 보면, 순-한글 문체 번역의 이상은 결코 이뤄질 수 없는 꿈이었다. 오히려 20세기 초를 전후로 하여 그는 국한문 혼용문체 즉, 한문과 한글이라는 한문전통과 민족어를 절합하는 방식에서 그 해법을 찾게 되기 때문이다.²¹⁾ 물론 그 전조는 1890년경 그의 한문고전학습에 있었다. 또한 1895~1896년 *The Korean Repository*에 게재된 그의 글에서 그 단초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게일은 이 잡지에 『남훈태평가』 소재 시조에 대한 자신의 번역물을 잡지의 ‘권두시’로 제시했다. 찬송가 번역을 위해서 한국인의 음악적이며 한편으로는 율격적인 취향을 알기 위해, 그가 한국의 고유어로 씌어진 이 문학작품이자 노래를 주목한 것은 의당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한국문학론(1895.11)에서 그가 한국인이 애호하는 문학양식의 예증으로 제시한 작품은 한국인의 일상생활어, 구어에 근접한 문학작품이 아니었다. 해당 작품 원전과 그의 영역문을 함께 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²²⁾

군자고향너흐니 알니로다 고향사를 / 오든 날 괴창천에 한 미화 뛰엿
드냐 안 뛰엿드냐 / 미화가 뛰기는 뛰엿드라마는 임즈 그려(『남훈태평

20) 위의 글, 321면, 323면.

21) 이 점에 대해서는 이상현, 『『유몽천자』 소재 영미문학작품과 게일의 국한문체 번역실천』, 『서강인문논총』 42,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15, 120-145면을 참조.

22) J. S. Gale, “A Few Words on Literature,” *The Korean Repository* II, 1895. 11, p. 423 ; 이하 게일의 이 한국문학론, 『조선필경』 소재 비평자료의 제시,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이상현, 윤설희, 앞의 책, 258-265면[初出: 이상현, 이진숙, 『朝鮮筆景(Pen-picture of Old Korea(1912))』 소재 게일 영역시조의 창작연원과 ‘내지인의 관점’], 『우리문학연구』 44, 우리문학회, 2014, 244-250면]에 의거한 것이다. 다만, 이후 본고의 3장에 본격적으로 논의할 모습들, 여성 독자를 주목한 게일의 새로운 양상 및 그의 한국문학 전체상에 국문문학을 포괄되는 모습과 관련하여 중요한 전조이자 예시란 사실, 게일이 서구인 독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원전에 개입한 양상을 추가로 제시했다.

가』 #81)

(Absent husband inquiring of a fellow-townsmen newly arrived) /
Have you seen my native land? / Come tell me all you know; Did
just before the old home door / The plum tree blossoms show? //
(Stranger answers at once) / They were in bloom though pale 'tis
true, / And sad, from waiting long for you.

이 작품은 사실 왕유(王維)가 지은 5언 절구의 한시를 차용하여 창작한 시조이다.²³⁾ 『남훈태평가』 소재 상기 작품의 종장은 물론 시조의 3장구조가 지닐 내용적, 형식적인 미감의 완성을 위해 새로운 내용을 가미했다. 하지만 초장과 중장에는 차용한 한시의 구절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예컨대, ‘군자 고향너’, ‘고향사’, ‘괴창전’과 같은 한시의 어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게일이 이와 같은 시조와 한시의 상호텍스트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 여부를 확답하기는 어렵다. 다만, 적어도 그의 번역양상을 보면, 이처럼 시조에 개입된 한시 문구를 분명히 번역하고 있었던 사실만큼은 이야기 할 수 있다. 요컨대, 게일은 이 시조 작품에 삽입된 언어표현이 한문 표현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나아가 그는 이 시조 작품을 통해 한국인들이 애호하는 언어표현이자 문학형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가 문학론에서 이 작품을 인용한 목적 역시 이렇듯 한국인이 좋아하는 문학형식 및 언어표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게일은 한국문학작품 속에 자연물은 그 대상 자체로 존재하지 않으며, 물리적 혹은 심리적으로 수만리 떨어진 관념들을 함께 함의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문학형식은 서구인에게 매우 낯설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예컨대, 서구인의 시각에서 상기 시조에서 ‘매화’로 말하고자 하는 바 나아가 ‘매화’가 사람을 기다리고 슬퍼한

23) “君自故鄉來 / 應知故鄉事 / 來日綺窓前 / 寒梅著花未(그대 막 고향에서 왔으니 / 고향 사정을 잘 알겠조 / 그대 오던 날 우리 집 꽃무늬 창가에 / 겨울 매화, 꽃을 피웠던가요?)”[왕유, 박삼수 역주, 『왕유詩全集』, 현암사, 2008, 862-863면].

다는 표현 자체를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게일의 번역을 보면, 원전에 없던 정황을 알려주기 위한 친절한 안내가 보인다. 지문을 괄호 안에 추가해 주었고, 시조의 초·중장과 종장이 두 사람의 대화 상황임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작품 속에서 매화가 매화나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을 떠난 남편을 기다리느라 지친 아내의 창백하고 슬픈 마음’을 드러내줌을 안내해주고자 했던 것이다. 비록 이렇듯 게일은 원전을 다소 변용했지만, 자신의 개입을 괄호 안에 넣었고, 아내에 대해 남편이 직접 물어보는 방식으로는 결코 번역하지 않았다. 그는 이럴 경우 노래의 형식과 아름다움은 모두 소멸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발견했던 바, 서구문화와는 다른 한국시가 작품은 물론 한국 문학, 더 나아가 동양 문학 및 회화의 일반적인 특성이었다. 즉, 서구의 회화가 매우 사실적이며 “명확하고 세밀한 정밀묘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그가 보기에 동양의 회화는 “명확하지 않은” “암시(suggestion)”와 “윤곽(outline)”만을 제시하는 표현방식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게일이 보기에, 문자를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식층까지도 모두 비유, 상징, 그림을 동일하게 생각하며, 이러한 이유로 알레고리와 암시적인 문학이 한국인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셈이었다. 『게일 유고』에 소장된 『조선필경(朝鮮筆景)』(1912)에는 이러한 그의 시각이 한층 더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남훈태평가』 소재 애정류 시조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그의 비평, 그리고 김준근(金俊根)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삽화가 바로 그것이다.

“가장 많은 수의 노래들이 버림받은 부인의 비애를 다루고 있다. 긴 밤의 시간은 두 배로 길어진 것처럼 보인다. 지나가는 새들의 지저귀음 그녀에게 그녀 자신의 표현보다 더 적절하게 다양한 그녀 자신의 존재를 암시해준다. 각각의 소리는 그녀의 비애를 고조시키는 목소리이다. 운명의 날들이 돌아옴은 그가 부재한 많은 세월을 기록한다. 개울물이 흐르는 소리는 그가 아직도 그녀를 기억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준다. 꽃

과 새들은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심지어 옛 성현과 역사 그 자체도 그녀들의 깊은 슬픔의 짐으로 가득 차 있다. 바다와 그 속의 수많은 무리 떼, 바위와 나무들은 모두 그녀에게 그들의 얘기를 말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이 금지된 열정, 사랑은 온 우주를 포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물론 이와 같이 게일이 자신의 해설과 관점을 보여준 것은 1910년대 남긴 미간행 유고 『조선필경』(1912)이었지만, 그 징후를 다른 논저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 게일이 이처럼 한국인의 한문/국문 표현에서 서구와는 다른 언어표현의 양식이자 차이점을 발견하고,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 한문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이유는 영어에 대한 그의 언어관과도 긴밀히 관련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게일은 “영국인들이 라틴어를 버린 것처럼 조선인들도 결국 한자를 버리리라 믿는다”²⁴⁾라는 헐버트

24) “Correspondence,” *The Korean Repository* III, 1896, p. 419 ; 이렇듯 게일-헐버트의 서로 다른 언어관으로 인해, 한글의 기원을 상상하는 방식이 달랐던 양상은 “이상현, 빈첸자 두루소, 『익명의 한국학자, 이익습(李益習, Yi Ik-seup)과 *The Korean Repository*誌의 ‘훈민정음 기원론’ 논쟁』, 『열상고전연구』 54, 열상고전연구회, 2016 ; 이상현, 『한글의 기원과 『훈민정음』의 흔적 : 게일의 “The Korean Alphabet”(1912)에 새겨진 서양인 훈민정음 기원론의 역사』, 『국제어문』 72, 국제어문학회, 2017”를 참조.

(Homer Bezaleel Hulbert, 1869-1949)의 언급을 비판했다. 그는 영어에는 여전히 약 30,000 단어의 라틴어와 약 15,000 단어의 게르만어(Teutonic)가 남겨져 있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그들이 로마자를 활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과연 영국인들이 라틴어를 버린 것인지를 다시 질문했다.²⁵⁾ 게일의 질문은 한 언어에 내재되어 있는 바, 현재와 단절될 수 없는 것이자 연속되는 전통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도 했다. 그가 한국어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실 이러한 영어에 관한 그의 관점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기도 했다.

다만, 1900년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학술지(*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Royal Asiatic Society*)』에 수록된 그의 논문을 펼쳐보면, 게일은 라틴 문명과 영국의 관계를 중국[한문] 문명과 조선의 관계로 동일시하지는 않았다. 그가 보기에 한국의 상황은 결코 영국과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영국의 초등학교 남학생들은 라틴어와 그리스어로만 노래하지 않았고, 이 교육의 현장에 여학생이 배재되지 않았다. 영국역사와 문학을 가르치지 않고 그리스 신화와 고대 로마 역사만을 가르치는 역사수업은 없었으며 영어가 오로지 고전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습도 아니었다. 현재 왕의 치세가 끝나기 이전에 현재를 다루는 역사서를 볼 수 없는 상황, 현대문학은 없고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학서만 판매되는 서점도 없었다.²⁶⁾

라틴 문명과 영국의 관계가 불연속이자 연속인 ‘진보’로 묶여진다면, 중국 문명과 조선의 관계는 말 그대로 과거를 향해 늘 회귀하며 순환되는 ‘숭고(崇古)’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1890년대 게일의 초기 영역시조를 보면, 잠시 인용했던 한문어구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시조작품을 번역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²⁷⁾ 즉, 1890년대 게일의 『남훈태평가』 소재 시

25) "Correspondence," *The Korean Repository* III, 1896, p. 497.

26) J. S. Gale, "The Influence of China upon Korea,"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Royal Asiatic Society* 1, 1900, p. 47.

27) 이 점에 대해서는 이상현, 윤설희, 앞의 책, 5장을 참조.

조작품의 번역은 1910년대 후반 고소설 번역과는 다른 차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한국의 구술문화에 관한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점이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문학에 내재된 한문 고전세계와 한국의 한문문학을 그는 어디까지나 ‘외래적인 것’이자 ‘중국문화에 종속된 것’으로 인식한 점이다.

③ 잠시 거론했던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학술지』에 수록된 게일의 논문(1900)은 중국문화가 한국문화에 준 영향력을 한국의 문헌자료를 통해 실증한 글이다. 이 글을 보면, 한국어문학에 내재된 한문 고전세계에 대한 그의 시각을 여실히 살펴볼 수 있다. 게일은 한국어가 한문과는 매우 다른 형태의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한문을 한국어에 긴밀히 접목시켰음을 지적했다. 이 논문에서 이러한 한국어의 실상과 한국에 영향을 준 중국문화로 규정되는 한자와 한문은 어디까지나 외래적인 것으로 매우 부정적인 함의를 지닌 것이었다. 예컨대, 한국어의 문법과 관련하여 “언문(諺文: En-mun)은 한문(漢文: Han-mun)의 노예가 되어 문장의 모든 허드렛일” 즉, “한문이 왕처럼 명사와 동사에 사용되는 반면에 언문은 어미, 연결사, 어형변화 부분을 담당”한다고 말한 그의 언급을 보면, 이 점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그는 『한영저번(韓英字典)』(1897)의 출판경험을 반추하며, 한국어 어휘의 전체상에 관해 아래와 같이 말했다.

32,789 어휘 목록에서 21,417개가 중국 어휘[인용자: 한자어]이고, 11,372개가 한국 어휘이다. 중국 단어가 한국 단어의 2배이다. 현재에도 한국어는 서구 사상의 유입을 표현하는 신조어로 넘쳐나는데 이들 신조어는 모두 중국어[인용자: 한자어]이다. 한문 사전 즉, 옥편(玉篇: Ok-p'yŭn)에는 10,850 한자가 있다. 이를 읽을 때 토착민들은 가능한 한 각 한자를 유사한 의미를 가진 고유어로 표기하고자 노력한다. …… 한자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고유어를 찾아 검색을 하면, 상응하는 고유어가 없는 한자가 3,000개 이상으로 밝혀질 것이다. 7,700개의 한자에는 해당하는 고유어가 발견되지만 그 나머지는 그 의미와 조금이라도 유사

한 단어조차 고유어에서 찾을 수 없다.²⁸⁾

상기 인용문에서 “32,789 어휘 목록”과 “한문사전(옥편)”은 각기 『한영 증보』(1897)의 1부와 2부를 지칭한다. 오늘날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종의 ‘한국어 사전’과 ‘한자 사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1-2부의 구성은 이 사전의 개정판(1911·1914)에도 이어졌다. 한국어 사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부에서 그가 중국어 어휘목록이라고 말한 21,417개의 어휘는 ‘* 표기가 붙여졌고 한자가 병기된 한국어 표제항’을 지칭하는 것이다. 2부 한자 사전에 관한 언급에서 한자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고유어’는 개별 한자에 대한 한국어 훈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열의 한국어에 관한 인식은 ‘한국화된 한자(어)’에 대한 온당한 인식이 전제되지 않는 것이었다.

한국의 한문고전과 한자(어)에 관한 온당한 인식이 전제될 때, 번역자란 그의 입장에서 본다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었다. 이는 영어를 번역할 수 있는 풍성한 언어표현의 보고이기 때문이었다. 적어도 1910년대 이후 계열은 이러한 한자어 나아가 한문고전을 중국적인 것 혹은 외래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한계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인에게 한자/한문고전 학습의 현장은 중국이라는 공간과 중국어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일례를 계열 한국문학론의 연원이자 중심기조라고 할 수 있는 탐구 즉, 그가 한국인의 유일신 관념을 찾고자 노력한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계열과 개신교선교사에게 매우 중요한 과업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성서의 하나님을 번역할 적절한 한국어 어휘를 찾는 시도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가 항상 “God”으로 번역했던 “天”이라는 한자

28) J. S. Gale, op. cit., p. 14 ; 한자어, 한국어에 내재된 한문맥에 관한 인식이 아니라, 한자·한문과 민족어의 결합방식을 통한 그의 국한문체 기획에 대해서는 이상현, 『『유몽천자』 소재 영미문학작품과 계열의 국한문체 번역실천』, 『서강인문논총』 42,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15를 참조할 것.

는 개신교의 하나님을 재현할 가장 적절한 ‘한국인이 지닌 유일신에 대한 감각’이었다.

이러한 번역용례와 한국인의 문헌에 반영된 관념을 『천예록』, 『청과극담』 등에 수록된 필기, 야담에 대한 번역 선집(*Korea folk tales : Imps, Ghosts and Fairies*(1913))에서 발견할 수 있다.²⁹⁾ 비록 한문이라는 서기체계로 씌어진 것이었지만 이를 통해서 이 한자를 공유했을 한국인의 감각과 내밀한 마음 속 음성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이, 1910년대 이후 그가 한문 고전에 새겨진 한자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유일신 관념을 추적한 그의 논문들에는 그의 한국문학론에 있어 중심기조와 그 원형이 형성되는 과정이 담겨져 있다.³⁰⁾ 그는 그가 한국에서 출판한 마지막 저술(*A History of the Korean People*)에서 이 번역 용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잘 표현했다. 게일은 서구의 일부 학자들이 ‘天’을 단지 “푸른 하늘(blue sky)”을 가리키는 어휘라고 주장하는 바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즉, 그의 번역용례가 잘 보여주듯 “초월적인 존재(Supreme Being), 천지의 소유자(possessor of heaven and earth), 인격과 사고의 근원(fountainhead of thought and personality)”이라는 개념을 지닌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게일은 결코 이 견해를 수긍하지 않았다.³¹⁾ 그의 이러한 판단의 근거에는 한국의 문인지식층이 스스로 ‘天’을 그저 “푸른 하늘”이라고 지칭하지 않았던 과거의 용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³²⁾

물론 게일은 저자를 김창업(金昌業, 1658~1721)으로 잘 못 밝혔기에 이

29) 신상필 · 이상현, 「게일의 『靑坡劇談』 英譯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356-368면 ; 이 논문에서는 이하 제시할 예시문의 출처가 무엇인지를 밝히지 못했고, 동일한 자료가 『게일 유고』에 소장되어 있음을 말하지 못했다.

30) 이에 대한 상술은 이상현, 『한국 고전번역가의 초상, 게일의 고전학 담론과 고소설 번역의 지평』, 박문사, 2013, 2장을 참조.

31)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신상필 · 이상현, 앞의 글, 363-364면을 참조.

32) J. S. Gale, “A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The Korea Mission Field*, 1924, 10, pp. 201-202.

구절의 출처와 원전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다행히 『게일 유고』에 동일한 구절에 관한 번역을 발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저자 표기가 올바르다. 게일이 인용한 구절은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의 『농암집(農巖集)』 10권에 수록된 「강의(講義)」였다. 게일은 1683년 7월에서 9월까지 경연(經筵)에서 행했던 『심경(心經)』 강독 내용 중에서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발췌·번역했다.

“What Confucius means by the Law of God is the natural law of conscience, and not fate that accepts poverty, riches, loss or gain an inevitable.” If a man meets calamity the question with him is one that pertains to his own heart. In fear and trembling let him examine himself in accord with the teachings of God, and see whether he has not transgressed, or failed to do his duty. This indeed is the true fear of God, or Ch'un. Now Ch'un is not the blue heavens, but God who resides in the heart and is the One to be feared.”³³⁾

공자가 말한 천명은 바로 하늘이 부여해 준 바른 이치이지 홍망의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이 재앙을 당하여 경계하고 두려워할 적에도 그 방도를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반성해 보아 항상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스스로 한 가지 생각을 낼 때에도 한결 같이 본성을 따라서 감히 어기지 말아야 할 것이니, 이것이 곧 천명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하늘이란 굳이 위에 있는 푸른 하늘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본디 두려워할 만한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孔子所謂天命 乃是天賦之正理 固非謂廢興存亡之命 人主之遇災警畏 其道亦不可他求 只是反之吾心 常存戒懼 自一念一慮之發 一循天賦之理而不敢違越 此便是畏天也 所謂天者 不必以蒼蒼在上者爲天 卽吾方寸之間 自有可畏之天矣].³⁴⁾

즉, 그가 ‘God=天’이라는 번역용례를 고집한 이면에는 상기 인용문이

33) J. S. Gale, “God,” *Miscellaneous Writing* 30, p. 88[『게일 유고』 Box 8].

34) 『農巖集』 10권, 「講義」; 한국어 번역문은 한국고전번역DB에서 취한 것임을 밝힘.

잘 보여주듯, “위에 있는 푸른 하늘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본디 두려워할 만한 하늘”이라는 한국인의 문집 속에 수록되어 있는 용례 때문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렇듯 선교사의 시각에서 서구와 대등한 유일신 관념을 지닌 한국인의 언어표현을 발견할 때, 나아가 이 한국인의 관념이 서구보다 오랜 연원을 지닌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더불어 이러한 한문고전 세계가 중국에 종속된 형태가 아니라, 한국인이 공유한 동아시아의 한문고전세계라는 사실을 수용할 때, 그의 한국문학세계화 기획은 비로소 가능해진 것이다. 이 때 한국은 그의 고별 강연문(1927.6)이 잘 말해주듯이, 세계에 사라져가는 마지막 한자문명권이자 세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새롭고 고유한 문명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수 세기 전부터 국가, 조직(교단),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한 종교는 하나님(인용자-天)의 마음과 일치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교나 불교 도교를 공부하면 할수록 이들 종교의 신실성, 자기부정적 사랑, 겸손, 슬기, 그리고 이 종교들을 처음 일으킨 위대한 영혼들의 헌신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한 가지 소망이 악을 극복하고 한 걸음씩 위로 올라가 하나님(인용자-天)께 가까이 가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³⁵⁾

3. 한국문명의 발견과 『구운몽』 영역본

: 미 의회도서관 소장 게일의 서한문과 미완의 한국문학 세계화 기획

① 캐나다 토론토대 ‘토마스피셔 희귀본장서실’(Thomas Fisher Rare Book

35) J. S. Gale, “Address to the Friendly Association June 1927”, p.3.(『게일유고』 Box 12) ; 이는 당시 어느 선교사나 서구인이 보여준 동양문화에 관한 게일의 존중을 보여주는 진술로 리처드 러트, 이상현 등 주목했다. 그렇지만 또한 게일이 보여준 하나의 새로운 문명의 발견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지는 못했다.

Library)에 소장된 『게일 유고』는 총 24상자로 나누어 보관되고 있다.³⁶⁾ 여기에 소장된 게일의 미간행 한국고전 번역물들을 분류해보자면, 기록의 형태에 따라 ‘게일의 친필원고’(필사자료)와 그가 ‘타자기로 작성한 교정원고’(활자자료)로, 그리고 묶여진 형태에 따라 낱장으로 된 ‘원고형’과 다수의 원고들이 묶여있는 ‘책자형’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팔상록(八相錄)』, 『해유록(海遊錄)』, 『호동서략기(湖東西洛記)』, 『춘향전』, 이규보 시문선집, 『노가재연행록(老稼齋燕行錄)』 등 작품의 번역물들은 아래와 같이 게일이 타자기로 작성한 교정 원고를 책자형태로 묶어 놓은 자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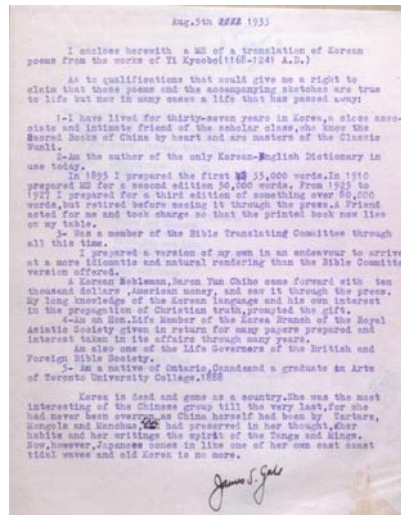
이러한 책자형 자료를 펼쳐보게 될 때, 일차적으로 게일의 폭 넓은 작품선정의 모습에 놀라게 된다. 그의 작품 선택은 유가의 정전이라는 개념만으로 포괄할 수 없는 차원이기 때문이다. 즉, 한국 문인지식층의 문집을 주목했던 게일의 입장에서 본다면, 1915년으로 번역시기를 적어놓은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엮은 『팔상록』, 여류 문인 금원 김씨(錦園金氏)의 『호동서략기』는 매우 예외적인 작품선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호동서략기』 뿐만 아니라 『팔상록』 역시 잠시 살펴보았던 『남훈대평가』 소재 시조 작품처럼 한국[동양] 여성의 삶이 깊이 관계된 작품이다. 예컨대, 게일은 『팔상록』을 구입할 수 없었다. 그에게 『팔상록』을 전해준 이

36) 이들 자료 전반에 대한 양상은 이상현, 『한국 고전번역가의 초상』, 소명, 2013, 353~357면 ; R. King, op. cit., pp. 237-241를 참조.

는 여성들이었다. 이 작품의 모든 면을 진실한 신이 제공해 준 것이라고 여기는 두 명의 신심(信心)이 깊은 나이든 여성들로부터, 이 책자를 빌릴 수 있었다고 게일은 책의 서문에 기록했다. 또한 게일은 부처라는 존재가 동양의 여성들과 분리될 수 없는 신앙적 대상이며, 그녀들의 괴로운 마음에 끝이 없는 위안과 위로를 주는 존재라고 이야기했다.³⁷⁾ 즉, 한국의 국문문학을 한문문학과 대등한 관계에서 한국문학 안에 포괄하는 행위는 여성의 독서세계를 게일이 수용함을 의미한 것이다. 『게일 유고』에 수록된 <토생전 영역본>에는 국문 고소설의 독자가 어디까지나 여성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 여성(독자)에 관한 게일의 관심은 실상 사대부와 기녀의 사랑을 담은 『천예록』에 수록된 한문단편 작품(『掃雪因窺玉簫仙』, 『簪桂逢重一朶紅』), 『창선감의록』, 『운영전』, 『구운몽』과 같은 한문소설 작품, 여성들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는 독서물이라고 여겼던 국문 고소설 작품에 대한 번역으로 이어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처럼 책자형태로 묶여진 자료에 있어 우리는 더욱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왜 게일은 자신의 원고를 이렇듯 책자 형태로 묶어 놓았던 것일까?’이다. 물론 우리는 그 이유를 충분히 추론해볼 수는 있다. 그의 육필본 혹은 개별 낱장으로 존재하는 자료와 대비해볼 때, 상대적으로 이 자료들은 게일이 출판하고자 한 단행본에 가장 근접한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

37) J. S. Gale trans., “Preface,” *The Life of the Buddha*, 1915. 11[『게일 유고』 Box. 7] ; 더불어 리처드 러트는 게일이 불교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로 게일의 벗 도널드 맥길리브레이(Donald MacGillivray)와 티모시 리처드(Timothy Richard, 1849~1919)의 저술(*The New Testament of Higher Buddhism*(1910))을 들었다.(R. Rutt, op. cit., pp. 61-62) ; UBC에서 개최된 워크숍과 학술대회, 고려대에서 개최된 북미지역 아시아학회 이향순, 빈첸자 두르소 두 분 선생님의 발표는 게일 한국학의 전환과 관련하여 여성, 불교에 관한 게일의 인식을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을 필자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 점은 유가의 한문고전에 관한 게일의 탐구만을 주목한 필자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주제는 별도의 논고를 기획하고 다뤄야 할 큰 주제이기에, 본고에서는 간략히 그 개요만을 거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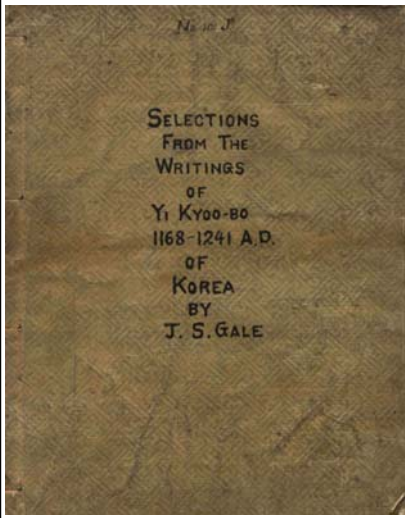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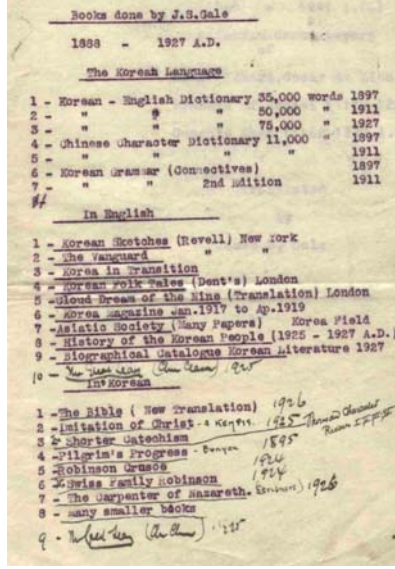


만 그의 한국문학 세계화 기획을 미완의 기획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원고들 자체가 미간행 원고란 사실에 있다. 즉, 게일의 출간 의도를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었다. 이 점에서 미 의회도서관 소장 게일의 서한문(1933년 8월 5일)은 소중한 자료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자료는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 수록된 한시문에 대한 자신의 번역선집을 출판하고자 했음을 증언해주기 때

문이다.

물론 이 편지는 게일이 본래부터 미 의회도서관에 보낸 것은 아니었다. 1933년 영국 바스(Bath)에 있었던 그는 영국의 한 출판사(Kegan Paul)에 책 출판을 의뢰했지만 거절당했고, 이 출판사는 옥스퍼드 대학출판사 측에 이 원고를 추천해주었지만 이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였다.³⁸⁾ 어떠한 경위로 이 서한이 미 의회도서관에 들어온 것인지를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편지와 함께 그가 보냈을 원고가 아래와 같은 자료(*Selections From the Writing of Yi Kyoo-Bo(1168-1241 A.D.) of Korea*; 이후 『이규보 시문선집』으로 약칭)였을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는 있다. 『이규보 시문선집』에는 흥미롭게도 게일의 저술 목록이 적힌 종이 원고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게일이 타자기로 작성한 부분과 그의 친필 메모를 함께 모아 보면, 아래의 도표에서 보이듯 한국어학에 관한 저술 7종, 영문저술 10종, 한국어 저술 10종이 정리되어 있다.

38) R. Rutt, op. cit., p. 83.

	
『이규보 시문선집』의 겉표지	『이규보 시문선집』에 수록된 게일의 저술목록

『이규보 시문선집』에 이 책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게일의 저술목록이 수록된 이유를, 게일의 서한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서한에는 게일이 한국문학 번역자로 자신이 얼마나 충실한 이력을 지닌 인물 인지를 적어놓았기 때문이다. 첫째, 37년 동안 한국에 머무르며 한국의 한학자와 긴밀히 교류 관계였던 사실, 둘째, 한국어 관련 사전의 편찬자 였던 점, 셋째, 한국에서 성서번역위원을 역임한 이력, 넷째, 왕립아시아 학회 한국지부의 회원이었던 점, 마지막으로 토론토대학을 졸업한 사실을 기록해 놓았다. 즉, 『이규보 시문선집』에 수록된 게일의 저술 목록은 출판사 측에 번역자이자 저자로서 자신의 정당한 자격을 제시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점은 그의 『구운몽』 영역본에도 마찬가지이다. 게일 영역본의 서설을 담당한 스콧(Elspet Robertson Keith Scott)이 번역자를 소개하는 부분에 이러한 게일의 이력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분류	저술명
한국어학	1~2) 『韓英字典』(1897, 1911), 3) 『韓英大字典』(1927[1931]), 4~5) 한영사전의 2부 및 별도로 출판된 한자-영어 사전 2종(1897, 1914), 6~7) 『辭課指南』(1893, 1911)
영문 저술	1) <i>Korean Sketches</i> (1898), 2) <i>The Vanguard</i> (1904), 3) <i>Korea in Transition</i> (1909), 4) <i>Korea Folk Tales</i> (1913), 5) <i>Cloud Dream of Nine</i> (1922), 6) <i>Korea Magazine</i> 에 수록된 그의 저술들(1917-1919), 7) 『왕립아시학회 한국지부 학술지』에 수록한 논저들과 9) 후일 이 학술지에 수록될 조선기독교대학(연세대학교의 전신) 도서관목록(1927[1933]), 8) <i>Korea Mission Fields</i> 에 연재한 한국사(1925-1927) cf) 게일의 육필 메모 : 『鮮英對照大學』(1925[1924])
한국어 저술	1) 『新譯 新舊約全書』(1925), 2) 『괴독성범』(1923), 3) 『모자성경문답』(1926-1927) 4) 『천로역정』(1895), 5) 『그루소 漂流記』(1924), 6) 『류락향도기』(1924), 7) 『나사렛 목슈 예수』(1927) 8) 많은 소책자들 cf) 게일의 육필 메모 : 『유몽천자』(1901-1909), 『鮮英對照大學』(1924)

이 서한문에서 주목해볼 또 다른 점은 이규보의 한시와 이 작품들 속 묘사가 옛 조선을 충실하게 재현해주는 것이라는 그의 언급이다. 여기서 그가 말한 ‘옛 조선의 형상’은 한국의 한문고전세계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는 한국이 이 전통을 오랜 시간 동안 간직해왔음을 지적했다. 적어도 근대화 혹은 일본문화의 영향력으로 이 형상이 소멸되기 이전까지는 말이다. 그가 세계에 소개하고 싶었던 대상은 사실 그가 한국에 입국했던 초기시절 체험했던 옛 조선의 문학이었다. 하지만 한국 한문학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은 결코 과거와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그가 제시한 저술목록에서 영문 저술이자 동시에 한국어 저술 양자에 해당하는 그의 성과물, 그가 육필로 목록에 기록해 놓은 중요한 성과물이기도 한 『선영대조대학(鮮英對照大學)』(1924)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게일이 『이규보 시문선집』을 번역, 출판할 이력을 지닌 인물이란 사실을 알려주는 증빙자료였다. 나아가 과거와 달리 중국에 종속된 한국의 한문고전세계가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공유했던 한문고전세계를 발견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책은 그 제명이 잘 말해주듯

이, 1부는 현토가 붙은 『大學』의 한문원전과 한국어 번역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부에는 게일의 서문과 영문번역문이 수록되어 있는 책자이다. 게일의 서문을 보면 이 영역본의 번역이 제임스 레게(James Legge, 1815~1897)의 선행업적과는 다른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어디까지나 한국인의 관점에 의거하여 『대학』의 의미와 정신을 서구인에게 전하고자 했다. 즉, 그에게 『대학』은 중국만의 고전이 아니었다. 한국에서 수 세기 동안 진행되었던 한국학자들의 축적된 논의와 국역의 역사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의 이러한 번역시도의 성과를 엄정하게 점검하는 작업이 전제될 필요가 있겠지만, 한국에서 『대학』 텍스트의 수용 혹은 이 텍스트와 한국인들 사이에 형성된 역사 그 자체를 주목한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³⁹⁾ 그의 『구운몽』 번역/출판에는 의당 이러한 한문전통에 대한 그의 새로운 시각이 전제되어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② 게일에게 유일한 한국문학 세계화 기획의 성공사례였던 그의 『구운몽』 영역본을 주목해보자. 이 영역본 역시 출판이 그리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구운몽』 영역본의 출간을 준비하던 현장이 『찰스 디킨즈와 동양의 작가들(Charles Dickens and Oriental Writers)』이라는 글 속에 담겨져 있다.⁴⁰⁾ 게일의 허락 없이 그의 벗은 『구운몽』 번역원고를 시카고 오픈코트(The Open Court) 출판사의 편집자인 폴 카루스(Paul Carus, 1852~1919)에게 보냈다. 폴 카루스는 큰 관심을 보였고 곧 출판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세계1차대전(1914-1918)과 이 편집자의 사망(1919)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역본은 1922년 보다 더 이른 시기에 세상에 빛을 볼 수는 없었다.⁴¹⁾ 『이규보 시문선집』의 경우와는 달리 그의 『구운몽』 영

39) J. S. Gale, "Introductory note," 『鮮英對照大學(The Great Learning by Chung-ja)』, 朝鮮耶蘇敎書會, 1924.

40) J. S. Gale, "Charles Dickens and Oriental Writers," 『게일 유고』 Box 9.

41) Ibid. pp. 4-5; 리처드 러트는 이 글을 참조문헌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기술한 『구운몽』영역본의 출판경위는 분명 이 원고 아니면 게일의 서한에

역본은 상대적으로 쉽게 출판사 측의 확답을 받을 수 있었던 사실 역시 물론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다.

물론 그 이유를 번역 작품의 성격 때문인지 아니면 시기상의 문제인지라고 어떠한 확답할 수는 없다. 다만, 폴 카루스가 당시 일본의 선불교가 전파되는 데 크게 공헌한 인물이라는 점을 잠시 언급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⁴²⁾ 일본의 임제종(臨濟宗) 승려 샤쿠 소오엔(釋宗演, 1859-1919)은 1893년 시카고 종교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이 종교회의는 “문화 간 이해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종교와 종교적 실천에 대한 포괄적이며 다양한 관점을 조성하고자 했으며” 그 중국적인 목적은 “세계 평화의 증진”에 있었다. 폴 카루스는 스즈키 다이세츠(鈴木大拙, 1870-1966)에게 도움을 청해, 샤쿠 소오엔의 강연을 영어로 번역하도록 조치했다. 이를 바탕으로 『부처의 복음(The Gospel of Buddha)』(1898)이라는 저술을 출판했으며, 이 책은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등지에 널리 번역되어 유통되었다.

폴 카루스가 『구운몽』 영역본의 원고를 받아 보았을 때, 동아시아 불교에 관한 그의 기호와 인식 역시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다. 스콧은 『구운몽』이 어디까지나 김만중의 어머니를 향한 효심에서 비롯된 작품이며, 작품의 주제가 인생무상(人生無常)을 느낀 주인공이 불교세계로 귀환하는 것이란 사실을 분명히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운몽』에 관한 게일의 짧은 단평 역시 이와 유사하다.⁴³⁾ 그렇지만 이를 수용할 서구

의거한 것이라고 추론된다.(R. Rutt, op.cit., p.59).

42) 뉴사우스웨일즈 대학 이반 선생님의 귀중한 강연(Gregory N. Evon, “J. S. Gale(1863-1937), Korean Buddhism, and the International Religious-Intellectual Context of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개항기 한국의 학술공화국을 말하다 14강』 프로시딩 자료집, 2017. 7. 10, pp. 12-14) 덕분에, 게일과 폴 카루스의 접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서술은 어디까지나 이반 선생님의 귀한 발견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며, 주석 상으로나마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린다.

43) E. K. R. Scott, “Introduction,” J. S. Gale trans., *The Cloud Dream of the*

인의 감각에 맞는 어휘는 불교라는 어휘보다는 이를 포괄할 더욱 상위 개념인 ‘종교’라는 어휘였다. 폴 카루스 그리고 게일의 영역본 사이의 이 점점 역시 마찬가지였다. 19세기말~20세기 초 형성된 종교적이며 지성사적인 맥락에 있었다. 그것은 불교와 개신교 서로 간의 상호이해가 개별 종교를 넘어 보편적 진리, 우주 종교(cosmic religion)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이는 스콧이 “유자, 불자, 도사들의 생각이 이 이야기 속에서는 섞여 들어가 있으나, 모두 지상 천국(이상향)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다 (Confucian, Buddhist and Taoist ideas are mingled throughout the story, but everyone speaks with confidence of Heaven as a place)”⁴⁴⁾라는 언급이 시사해주듯이 소위 유불선 삼교융합, 아니 더 엄밀히 말하자면 『구운몽』 영역본에 내재된 “天=God=하느님”이라는 번역관계가 잘 보여주듯, 번역자에 의해 덧입혀진 개신교의 색채도 분명히 개입되어 있다. 요컨대, 게일의 영역본이 불교 자체가 아니라 불교, 도교, 유교[나아가 개신교]의 상호작용을 통한 종교적인 긴장과 그 보완과정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야말로 폴 카루스가 흥미를 느낀 대목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볼 수 있다. 또한 게일의 영역본을 폴 카루스가 담당했더라면, 『구운몽』은 보다 폭 넓은 독자와 큰 시장을 대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셈이다.⁴⁵⁾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게일의 『구운몽』 영역본은 원전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번역 실천에는 번역본과 원전 사이의 등가성 그리고 보존해야 할 원본의 형상이 분명히 전제되어 있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사실 이 점이야말로 『찰스 디킨즈와 동양의 작가들』에서 게일이 『구운몽』 영역본과 관련된 이 짧은 일화를 소개한 이유

Nine, London: Daniel O'Corner, 1922, p. x iii ; J. S. Gale, “Notes on relation to Cloud Dream of the Nine,” 『게일 유고』 Box 8.

44) E. K. R. Scott, op. cit., p. 37.

45) Gregory N. Evon, op. cit., pp. 13-14.

였다. 이 글은 그 제명이 잘 말해주듯, 찰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812~1870)와 그가 번역한 한국문학 작품을 대비하여 서술한 글이다.⁴⁶⁾ 찰스 디킨즈의 작품에 대한 게일의 독서체험 또한 게일이 느꼈던 이 거장의 작품과 한국문학 작품이 지닌 동질성을 물론 쉽게 논할 수는 없다. 게일 역시 이 영미문학의 거장과 동양한국의 작가의 접점을 매우 논리적이며 객관적인 차원에서 논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찰스 디킨즈로 대표되는 서양의 문학작품과 동양의 문학작품 양자를 대등하게 인식한 게일의 모습만큼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애초에 게일이 이 글에서 그의 『구운몽』 영역본에 관해 언급한 이유는, 이 작품이 『이규보 시문선집』에 수록된 한시문과 동일하게 동양한국의 풍속, 글쓰기, 정신(마음, 영혼)을 재현해준다는 사실, 또한 그의 번역물은 원본에 바탕을 둔 매우 충실한 작품임을 말하기 위해서였다. 그 일화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폴 카루스는 이 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출판을 결정하기에 앞서 물어볼 말이 있다고 했다. 그 질문의 요지는 게일의 번역본이 원본에 얼마나 충실한 지를 확인하는 데 있었다. 즉, 그는 게일에게 원본에서 생략한 부분과 임의로 첨가한 부분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 게일은 그러한 사례가 없음을 확답했다. 그는 자신의 번역본이 그의 개입이 없는 작품이며 단지 “동양의 마음, 이에 대한 충실한 반영”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글에 수록된 다른 한국문학 작품의 번역물 역시 『구운몽』과 동일한 수준의 번역이라고 지적했다. 즉, 이 글에 수록된 신유한의 『해유록』, 김부식의 『삼국사기』, 임방의 『천예록』의 한 대목들에 대한 번역, 이달충, 이규보, 홍양호의 한

46) 찰스 디킨즈는 게일이 자신의 마지막 삶의 터전을 이 작가의 생가로 결정할 만큼 평생 흠모했던 작가였다. 그의 서한을 보면, 찰스 디킨즈는 한국 입국 초기 그의 누이에게 보내줄 것을 부탁한 책의 저자이며, 게일이 경신학교의 교과서로 출판했던 『유몽천자』란 교과서에도 『둘비 부자』의 한 부분이 번역되어 수록되어 있다.(이상현, 하상복, 『한 개신교선교사의 독서체험과 문화번역』, 『민족문화사연구』 58, 민족문화사연구소, 2015, 157-158면, 168-172면).

신문에 관한 번역 역시 번역자의 가감이 개입되어서는 안 될 원본의 형상과 서구문학 작품과 대등한 어떠한 형상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동양의 심층이자 마음 깊은 곳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⁴⁷⁾

더불어 게일이 이 글에서 제시한 한국문학의 범주에 국문문학이 배제되지 않은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게일은 한국인의 사랑 노래를 함께 소개한다. 이 노래는 “두 번째 부인, 첩, 기녀”들이 자신을 버린 이에 대한 외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남훈태평가』에 수록된 애정류 시조 작품들에 대한 번역물이었다.⁴⁸⁾ 비록 이 글은 그가 은퇴한 이후 28면 분량의 강연문이지만, 게일이 한국에서 번역했던 문학작품들이 거의 모두 집성되어 있다. 이러한 게일의 번역관과 한국의 국문문학이 포괄되는 모습은 *The Korea Magazine*에서의 한국문학론 그리고 『옥중화』 영역본에 대한 편집자의 논평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즉, 말은 외면이자 순간적인 것이지만 글은 내면이며 영원한 것이라는 인식, 따라서 동양(한국)인의 은밀하고 진실한 마음 속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문학이라는 인식이 잘 반영되어 있다. 더불어 원본에서 무엇을 빼거나 더한다면 작품의 매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직역이 필수이고, 『춘향』(『옥중화』 영역본)은 원전을 직역(literal translation)을 했기 때문에 충실한 번역(faithful translation)이라고 말한 잡지 편집자의 논평과 동일한 양상인 것이다.⁴⁹⁾

물론 『찰스 디킨즈와 동양의 작가들』에서 동양이란 어디까지나 한자,

47) J. S. Gale, “Charles Dickens and Oriental Writers,” 『게일 유고』 Box 9, pp. 4-20 ; 게일의 이러한 번역관을 이 논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는 논의는 이상현, 『게일의 한국고소설 번역과 그 통국가적 맥락』, 앞의 책, 41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논저가 한국에서 선교생활을 은퇴한 이후의 강연문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지 못했고, 이 논저에 집성된 한국문학 번역물이 게일이 일평생 번역했던 작품들을 선별하여 집성한 사실을 파악하지는 못했다.

48) Ibid., pp. 20-21.

49) J. S. Gale, “Korean Literature(2): Why Read Korean Literature?,” *The Korea Magazine* I, 1917. 8, p.21.

한문이라는 서기체계와 한문학을 공유한 국가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차원이었다.⁵⁰⁾ 그가 이 글에서 번역한 한국 문학작품의 작가들을 동양의 작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은 이러한 국가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연원을 지닌 문명이기도 했기 때문이다.⁵¹⁾ 그렇지만 이러한 한국의 문명은 결코 중국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는 이러한 동아시아의 한문 고전세계를 공유한 한국문명의 발견이라고 명명할만한 것이었다.

③ 게일에게 있어 한국의 작가와 작품을 포괄해주는 이러한 한국문명이라는 형상을 의당 『구운몽』 영역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게일의 『구운몽』 영역본이 출판될 수 있었던 이유는 1919년 3월 한국을 방문한 엘리자베스 키스(Elizabeth Keith)와 스콧 자매가 그를 만나 이 영역본을 접하게 되었고, 이 원고를 런던의 다니엘 오코너(Daniel O'Conner) 출판사에 전해주었기 때문이다. 스콧은 영역본의 서설에서 번역자 게일의 언급을 빌려, 한국, 한국문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야기했다.

한국인은 우리 근대 문명과 아주 다른 어떤 경이로운 세계, 그 정신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세계에 외따로 살고 있다. 나는 이런 한국 정신의 세계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기 위해 30여년 동안 공부해왔다. 그럼에도 난 여전히 이방인이다. 하지만 내가 이런 고대 한국 문명을 파고 들면 들수록, 나는 더욱더 그것을 존경하게 된다.⁵²⁾

『서설』을 쓴 스콧이 잘 지적했듯이, 상기 인용문은 게일이 일본인과의

50) J. S. Gale, "Charles Dickens and Oriental Writers," 『게일 유고』 Box 9, p. 1.

51) Ibid., p.4.

52) E. K. R. Scott, "Introduction," J. S. Gale trans., *The Cloud Dream of the Nine*, London: Daniel O'Conner, 1922, p. vi ; 주 52-54의 자료들은 선행연구에서 단편적으로 거론된 것이지만, 본고에서 상술한 바대로 이 자료들 서로가 긴밀히 연관된다는 점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회담 속에서 자신의 소견을 피력한 발언이기도 했다. 이는 1920년대 3.1 운동 초기 총독부 관리들과 선교사들 사이에 열린 비밀회담 문서로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⁵³⁾ 이 회담은 1919년 3월 22일 조선폰텔에서 개최된 것이었는데, 일본의 한국 통치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당시 개신교선교사들에게 허심탄회하게 말해 줄 것을 요청한 자리였다. 일본 측의 종합보고서를 펼쳐보면, 일본 측은 다년 간 친일적 노력을 보여주었던 게일이 이 회담에서는 총독부의 무단통치의 실패를 규탄했으며, 본인의 솔직한 발언을 제시했다고 기록했다. 게일은 일본의 통치가 한국에 있어 물질적인 측면에서 큰 이익을 준 것이 분명하지만, 한국인들의 고유한 정신세계이자 정신“문명”을 간과한 사실을 비판했다. 따라서 일본인의 통치는 이후 이와는 달리 한국인들의 문명과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하며, 한국의 고유한 문명과 다른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그 위에서 건설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러한 총독부의 문건, 『구운몽』 영역본보다 게일의 논지가 보다 상세히 제시되어 있는 글이 있다. 그 글은 영국 주미대사를 역임했던 인물인 브라이스(James Bryce) 경에게 1919년 3월 10일에 보낸 서한이다.⁵⁴⁾ 이 서한은 3.1 운동의 실상과 일본의 조선통치의 야만성을 고발하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 비밀 서한이었다. 그렇지만 본고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한국의 민족과 문명에 관한 그의 언급들에 있다. 이는 ‘조선이 자유를 되찾는다면 국가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게일의 답변이기도 했다. 게일은 비록 명확한 역사적 기록은 아니지만, 한국에는 단군시대(B.C. 2333~58)로부터 소급할 수 있는 장대한 ‘역사’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중국의 통치적 실권이 없는 ‘한날 명목상의 속국’이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독립적

53) 「3.1 운동 초기 총독부 관리들과 선교사들 사이에 열린 (비밀) 회담 문서」(김승태, 『한말·일제 강점기 선교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267~270면)

54) J. S. Gale, 유영식 편역, 「브라이스 경에게 보낸 편지」, 『착훈목자: 게일의 삶과 선교』 2, 진흥, 2013.

이고 분열되지 않은 단일 민족국가'로 기술된다. 문학, 시, 역사, 철학, 종교, 과학, 기술 분야에서 많은 유산을 남긴 국가였다. 한글, 금속활자, 뛰어난 수준의 도자기와 종이, 일본인들 역시 문집을 사서 모으려고 할 수준의 위대한 문인을 보유한 나라였다.⁵⁵⁾

이처럼 그의 글 속에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며 중국과 분리된 고유한 문명으로 형상화되고 있었다. 이 문명이야말로 게일이 번역하고자 했던 대상이자 그의 세계화 기획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물론 브라이스 경은 게일의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하지는 못했다. 다만 “좋은 날이 올 때 까지 민족의 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선인들이 학문이나 혹은 그들이 장구하게 지녀왔던 전통을 고수함으로 민족의 혼을 유지하는 데 매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조선에서 식자층이 늘어날수록 결국 조선은 더욱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자신의 언어를 고수하고 민족 문화를 보존하려는 1,200만 명에서 1,4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민족성을 말살할 수는 없습니다”⁵⁶⁾라는 조언을 남겼을 따름이다.

브라이스의 조언을 게일이 어떻게 수용했으며 인식했는지를 명확히 말할 수 없다. 다만, 게일의 한국문학 세계화 기획은 한국의 전통과 고전을 보존하고자 한 지향점이 존재했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다. 더불어 20세기 초 한국문명의 중국문화에 관한 종속성에 대한 그의 관점이 변모된 근간에, 근대 한국 지식인과의 접촉이 존재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증언해줄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지만, 결코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① 우리글은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가장 進歩한 科學的 組織을 가진 글입니다. 이것은 나의 獨斷이 아니라. 外國人이 우리보다도 먼저 그 價

55) 위의 글, 211-214면.

56) J. Bryce, 유영식 편역, 『브라이스 경이 게일에게 보낸 회신』, 『착흔목자 : 게일의 삶과 선교』 2, 진흥, 2013, 217면.

値를 잘 認識하는 바이외다. 요前に 나는 駢逸 博士의 부름을 받아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博士는 늘 우리 歷史를 상고하던 터이므로, 世宗의 史蹟中 訓民正音의 創製에 對하여 여러 가지로 물은 뒤에 “世宗은 東洋뿐 아니라 世界에 큰 貢獻을 한 가목한 王입니다. 열 가지 偉大한 事蹟이 많으나, 무엇보다도 文字의 發明은 世界的 자랑입니다.”함을 들었습니다. 그리하나 도리어 우리는 우리의 文字의 價値를 알지 못함은 크게 섭섭한 일입니다.”⁵⁷⁾

② …제, 에쓰, 駢逸 博士가 來訪하여 圓覺寺와 敬天 등 塔에 關하여 問議가 잇거늘 金茂園 先生으로 더부러 答說하다. 그가 갈오대 碑文에도 잇거니와 朝鮮初期에 朝鮮匠色의 손에 製作된 것인데 精巧하기 敬歎할바듯 업스니 가목하다하며 거긔 對한 몇 가지 疑難을 提出 하더라.⁵⁸⁾

①은 한결 김윤경(金允經, 1894~1969)이 1911년경 서울 상동청년학원(尙洞靑年學院)을 입학하여 수업시간에 들었던 주시경(周時經, 1876~1914)의 목소리였다. 한국어 사전과 문법서를 펴낸 바 있으며 한국어에 매우 능숙했던 게일이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에 대해서 주시경에게 자문을 청했던 이유가 있었다. 그는 이 시기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학술지』에 한글의 기원을 주제로 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⁵⁹⁾ 게일의 이 논문에는 한글이 창제시기부터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가장 進歩한

57) 金允經, 『朝鮮文字及語學史』, 朝鮮記念圖書出版館, 1938, 115면[밑줄 및 강조는 인용자의 것]; 더불어 이 인용문은 김윤경의 『訓民正音의 性質과 價値, 朝鮮文字의 歷史的 考察(10)』, 『동광』 32, 1932. 4. 1, 65~66면에서도 거의 동일하다. 또한 『朝鮮文字及語學史』의 잘못된 주석과 달리, 『동광』에 수록된 글에는 “辛亥年[인용자 1911년] 間에 筆者가 周時經先生께 教授時間에 직접 들은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58) 최남선, 『一日一件』, 『청춘』 3, 1914. 12. 6.

59) J. S. Gale, “The Korean Alphabet,”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IV(I), 1912 ; 이 논고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이상현, 『한글의 기원과 『훈민정음』의 혼적: 게일의 “The Korean Alphabet”(1912),에 새겨진 서양인 훈민정음 기원론의 역사』, 앞의 책을 참조.

科學的 組織”이 있는 문자였음을 스스로 증언해주는 『훈민정음』이라는 위대한 저술의 존재가 깊이 개입되어 있었다.

② 역시 사정은 거의 동일하다. 이 시기는 ‘원각사지 10층석탑’의 역사적 연원을 고찰하는 논저 1편을 게일이 준비하고 있었던 때이다.⁶⁰⁾ 게일은 육당 최남선(六堂 崔南善, 1890~1957)과 무원 김교헌(茂園 金敎獻, 1868~1923)에게 일종의 자문을 요청했고 이를 받은 셈이다. 비록 매우 짧고 단편적인 기록만이 남겨져 있지만, 이 속에는 게일의 논문이 지닌 핵심적인 요지가 잘 반영되어 있다. 당시 이 석탑의 역사적 연원은 남공철(南公輒, 1760~1840)의 『금릉집(金陵集)』(1815)에 수록된 기록(『高麗佛寺塔記』)에 근거하여, 원나라의 황제가 조선인 황후를 위해 고려에 보낸 선물로 이해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당시 이 석탑의 연원을 설명해주는 『대원각사비(大圓覺寺碑)』가 마멸되어 있어 그 판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게일이 이 논문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대원각사비』가 『속동문선(續東文選)』에 수록되어 있었기에, 이 석탑이 조선인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까닭이다. 이 논문의 요지는 최남선이 남긴 짧은 언급에도 잘 담겨 있다.

하지만 ①과 ②를 통해 함께 주목해야 될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한국 지식인과 이 개신교선교사에게 한글과 석탑이 ‘방치된 유물’에서 일종에 ‘보존되어야 할 한국의 문화유산’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국적이 다른 지식인들의 접촉과 학술적 교류의 현장 그 자체가 그의 세계화 기획의 대상, 게일이 한국인이 수용한 고유한 한문고전세계와 한국문명을 발견하게 된 하나의 중요한 원동력이란 사실을 능히 짐작해볼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나아가 그는 그가 발견한

60) J. S. Gale, “The Pagoda of Seoul,”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I(II), 1915 ; 이 논문의 학술사적 의미 및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이상현, 『이중어사전과 개념사 그리고 한국어문학: 게일 고전학을 읽을 근대 학술사적 문맥, ‘문화재 원형’ 개념의 형성과정과 한국어의 문화생태』, 『반교어문연구』 42, 반교어문학회, 2016을 참조.

이 문명이 세계문화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다. 이는 한국의 근대 지식인과 게일이 공유하고 있었던 생각이라고 판단해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한국문명은 게일에게 어떠한 가치와 가능성을 지닌 것이었을까?

4. 한 노년선교사의 고해성사와 동양의 희랍문명

게일이 한 평생 그와 함께 같이했던 한국인들에게 남긴 마지막 신년 덕담이자 전언(『구미인이 본 조선의 장래 - 나는 전도를 낙관한다』(『新民』 9, 1926.1))을 펼쳐보면, 그는 한국문명이 세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⁶¹⁾ 그는 이 글의 마지막 말미에서, 1900년 정월 그러니까 20세기가 열리는 새해의 벽두, 서구의 잡지 및 신문에 수록된 유명

61) J. S. Gale, 황호덕·이상현 옮김, 『개념과 역사, 근대 한국의 이중어사전』 2, 박문사, 2012, 186~187면(奇一, 『歐美人の見たる朝鮮の將來—余は前導を樂觀する』(四), 『朝鮮思想通信』 790, 1928; 이 글은 『朝鮮思想通信』 787-790호에 4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현재 영인본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목록상으로는 보이는 『新民』 9호(1926.1)에 수록된 게일의 글이 일본어로 번역된 것으로 추론된다); 이상현, 앞의 책, 2장(初出: 『제국들의 조선학, 정전의 통국가적 구성과 유통: 『天倪錄』, 『靑坡劇談』 소재 이야기의 재배치와 번역·재현된 '朝鮮』, 『한국근대문학연구』 18, 한국근대문학회, 2008, 90-92면)에서 게일의 이 글은 1920년대 이후 한국의 민족성이 서양어/일본어/한국어라는 각기 다른 세 가지 언어로 재현될 수 있는 상황, 한국 근대어의 출현과 이를 둘러싼 통국가성이라는 차원에서 거론된 바 있다. 또한 주변부 한국에서 체험한 서구적 근대 또한 서구적 근대성의 신화에 대한 게일의 반성이라는 차원(『한 개신교 선교사의 독서체험과 문화번역: 『유몽천자』 소재 영미문학 번역물의 존재 방식에 대하여』, 앞의 책, 138-139면)에서 주62)의 자료와 함께 화두로 제시되기도 했다. 비록 이와 동일한 화두로 이 자료를 활용했지만, 본고의 4장에서의 초점은 한국문명을 명명한 동양의 희랍이라는 게일의 규정이다. 또한 이 규정의 의미를 '한국문화를 사랑한 외국인'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게일의 한국문학 세계화 기획이 성립한 전제조건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했다.

인사들의 전망과 덕담들을 회고했다. 그들은 한 결 같이 도덕과 의료기술이 발달하여 전쟁과 질병이 사라지고, 식량이 풍부해져 인류의 투쟁욕이 소멸된 세상, 새롭게 펼쳐질 행복한 세상을 예견했다. 하지만 그러한 서구적 근대성의 신화는 적어도 게일이 보기에 그의 생애에는 결코 성취되지 않았다. 오히려 사정은 그 반대였기 때문이다. 세계대전, 유행병의 창궐, 사상 및 계급투쟁이 발생한 혼란한 세상, 그는 이 세상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를 가늠할 수 없었다. 설사 “하늘의 신이 하시는 일은 인류로서는 알 도리가 없는 것”이란 사실을 인정할 지라도 앞으로 또한 “어떤 대변화가 일어날지” 어떠한 예측도 할 수 없었다. 근대 세계의 역사는 그가 보기에, “고금에 걸쳐 수많은 변천을 거듭해온 겁화(劫火)”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그가 체험한 이러한 ‘서구적 근대’는 한국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가 세계에 알리고자 했으며 보존하고자 했던 한국의 고전세계이자 문명과 지극히 대비되는 새로운 세상이 그에게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 한문고전의 죽음, 한국고전 문화의 소멸을 곧 한국의 멸망이라고 인식했다. 그는 그의 마지막 단행본이자 잡지 연재물(1927.9)에서 “한국의 멸망은 정치적인 희생물이 아니다. 그것은 서구에서 온 사회적이며 지적 혁명의 희생물이다. 우리 선교사들은 무의식중에,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파괴자들이 되었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는 1920년대 말 한국에도 예외 없이 찾아온 이러한 ‘전지구적 차원의 서구적 근대’에 대한 자기혐오감이 깊이 개입된 그의 고해성사였으며, 그의 초기 저술에서 ‘서구문명=개신교’라는 문명화의식과는 지극히 대조되는 모습이었다.⁶²⁾

한국의 근대와 고전문명 양자의 선명한 보색대비와 그의 한국문학 세계화 기획은 긴밀히 관련된다. 훼손되거나 폐허화되는 고전 그 자체야말로 보존 및 복원의 필요성을 저절로 상기시켜주기 때문이다.⁶³⁾ 하물며

62) J. S. Gale, “A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The Korea Mission Field*, 1927. 9.

그것이 세계문명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었다면, 더더욱 그 상실감은 컸을 것이다. 그가 한국인에게 남긴 전언을 다시금 펼쳐보면, 이러한 정황을 분명히 짐작할 수 있다.

조선은 실로 **동양의 희랍**이라고 말하고픈 나라로, 일찍이 고대 유사 이래 온갖 문화를 창조했으며 세계에 으뜸가는 바가 있었습니다.⁶⁴⁾

대포의 나라나 군함의 나라라는 오늘날의 현상을 보아 **문필의 나라** 조선은 몸소 다른 사명을 지닌 것은 아닐까요?⁶⁵⁾

그가 오랜 시간 동안 몸소 체험한 한국, 그가 이 글에서 돌아보았을 때, 한국은 여전히 ‘심오하며 흥미’로운 대상이며, “한 편의 활동사진”과도 같았다. 그것은 ‘대포, 군함의 나라’로 상징되는 세계의 역사와 구분되는 ‘문필의 나라’로 형상화되는 일종의 역사적 파노라마였다. 이 역사적 파노라마에는 ‘조선혼’이라 표현된 한국(민족)이 영혼을 채우고 있는 장대한 이상이자 관념들로 구성된 것이자, 한국 한문지식층이 남긴 문헌 속에 오롯이 새겨져 있던 흔적이었다. 그가 보기에 한국인들은 동아시아 고전들과 문헌 속에 전하는 역사와 문학을 늘 공부하며 암기하며 이야기하고 이를 꿈꿨다. 이는 “기원전 300년부터 기원후 1000년까지 줄곧 뻗어있는 이 역사는 영화가 총이 아니라 책으로 존재해온 통치의 상징들”, “위대한 왕과 성자들, 학자들을 필름으로 담아냈던 4,000년의 시간”이었던 것이다.⁶⁶⁾

63) 살바토레 세티스, 김운찬 옮김, 『고전의 미래: 우리에게 고전이란 무엇인가』, 길, 2009, 139면.

64) J. S. Gale, 황호덕·이상현 옮김, 앞의 책, 179면.

65) 위의 책, 187면.

66) J. S. Gale, 황호덕·이상현 옮김, 앞의 책, 170면(“What Korea Has Lost,” *The Christian movement in Japan, Korea and Formosa*, Kobe, 1926) ; 이 자료는 게일이 인식한 한국문명의 총체를 잘 제시해주기에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선행 연구에서 게일 한국관의 전환이라는 관점(이상현, 『한국 신화와 성경, 선교사들

당연히 한국에 대한 이러한 게일의 시각과 인식은 매우 이상적인 것이며, 낭만적인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조선=동양의 희랍문명’이라는 게일의 이러한 발언이, 그만의 특별하며 독자적인 발언이 아니었던 사실도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는 과거에도 존재했던 소위 소중화(小中華)라는 한국 문인 지식층의 자기인식에 근접한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고전세계를 접목했으며 이를 면밀히 탐구했던 또 다른 외국인, 쿠랑의 저술(1894) 속에서도 거의 유사한 언급을 발견할 수 있다. 쿠랑이 보기에, 한국인들은 “옛 중국에 대해 그들은 깊은 감사와 함께 대단한 추억을 간직했”지만, “현재 중국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마음속으로 경멸”하고 있었다. 그가 보기에 이로 인해 한국이라는 “좁은 영토는 세계의 중심지”이며, “한국인 자신들은 원칙의 유일한 수탁자”였다.” 쿠랑은 이러한 한국인에 대한 발언을 세계가 “예게海에서 겨우 이오니아海에까지 밖에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고대 희랍인 중 한 사람이 하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⁶⁷⁾

물론 게일과 달리 쿠랑에게 한국인의 자기정체성은 비판의 대상이었으며, 시기적으로 볼 때에도 쿠랑의 경우 청일전쟁을 전후로 한 당시 외교적 정세를 바탕으로 한 한국관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지닌 공통점이 분명히 존재했다. 게일은 1900년에 『동몽선습(童蒙先習)』에서 접촉한 ‘소중화(小中華)’라는 표현을 아래와 같이 번역한 바 있었다.

의 한국 신화 해석 : 게일의 성취론과 단군신화 인식의 전환, 『비교문학』 58, 한국비교문학회, 2012, 65-66면)에서 해석하지는 않는다.

- 67) M. Courant, 이희재 역, 『한국서지』, 일조각, 1997[1994], 73면. ; 더불어 쿠랑 역시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문명의 가능성만큼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정신의 명석함은 아름다운 도서 인쇄에서, 현존하는 가장 단순한 字母의 완성도에서, 그리고 세계 최초의 인쇄활자 구상에서 드러나는데, 나는 굳이 여기서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갖가지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켜 일본으로 전수시킨 점을 말하진 않겠다. 극동문화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은 엄청난 것이어서, 만일 그 입지가 유럽과 흡사한 것이었다면 한국의 사상과 발명은 인접 국가들을 모두 흔들어 놓았을 것이다”(같은 책, 73-74면).

“Our ceremonies, our enjoyments, our laws, our usages, our dress, our literature, our goods have all followed after the models of China. The great relationships shine forth from those above and the teachings pass down to those below, making the grace of our customs like to that of the Flowery Land; so that Chinese themselves praise us saying “Korea is **little China**.”⁶⁸⁾

……예악법도와 의관문물을 모두 중화의 제도를 따라 인륜이 위에서 밝혀지고 교화가 아래에서 시행되어 풍속의 아름다움이 중화(中華)를 방불하였다. 이 때문에 중화인들이 **우리를 소중화(小中華)라고 일컬으니**……[……禮樂法度 衣冠文物 悉遵華制 人倫明於上 教化行於下 風俗之美 倖擬中華 華人稱之曰小中華……]”

상기인용문에서 “작은 중국[little China]”이라고 번역한 소중화(小中華)에 대한 게일의 인식은 쿠랑의 인식과 사실상 동일했다. 1900년에 게일이 작성한 이 논문의 전후맥락을 따져볼 때, 이러한 한국인의 자기 정체성은 어디까지나 중국문화에 대한 종속성, 사대주의라는 함의에 더욱 근접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쿠랑, 게일의 인식이 이처럼 동일한 시기가 있었다. 더불어 쿠랑, 게일에게 ‘동양의 회랍’이라는 표현은 단지 한국 유가 지식인의 ‘소중화 의식’에 대한 번역으로 한정할 수 없는 의미가 있다. 이 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 부족한 논고를 갈무리하고자 한다.

‘동양의 회랍 = 소중화’라는 번역관계는 등가관계의 성립이 아니라 오히려 대등한 ‘대응관계의 성립’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 번역관계의 출현 그 자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대응관계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 혹은 ‘은자의 나라’ 한국에서 출현한 것이 아니었다. 게일의 말을 빌려보자면, 한국이 “세계의 위대한 교통로 중 하나에 놓인 정류장”⁶⁹⁾으로 변모되었을 때 즉, 서구문명과 한국(혹은 한국고전)이 관계를 맺은 역사

68) J. S. Gale, “The Influence of China upon Korea,”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Royal Asiatic Society* 1, 1900, p. 24.

69) J. S. Gale, “A Contrast,” *The Korea Mission Field*, 1909, p.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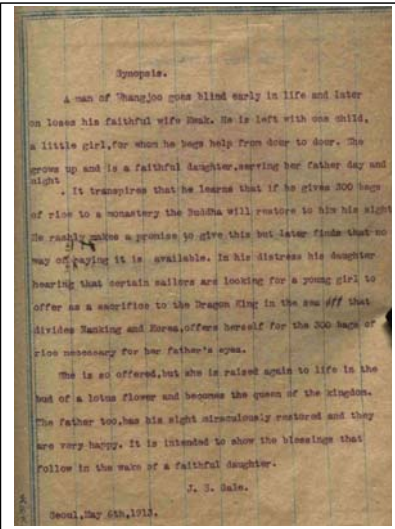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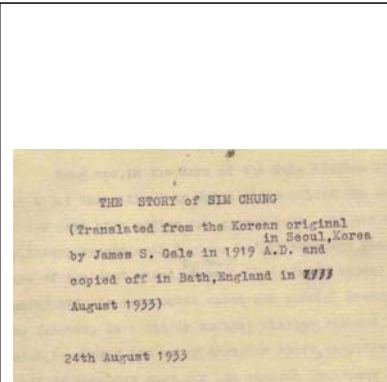
적 사건 속에서 출현한 것이었다. 게일의 한국학 단행본으로 시선을 좁혀 말해보자면, 물론 이 과정은 그가 한국문학을 공부해나가면서 앎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이기도 했지만, ‘미개한 조선인’이 제국들의 통국가간 편제 속에서 유통되는 하나의 단위인 종교, 문학, 학문을 지닌 ‘조선민족’으로 재편되는 과정이기도 했다.⁷⁰⁾

이처럼 게일의 한국문학 세계화 기획에는 서구와 한 편으로는 대등하며 동시에 차이를 지니는 한국문명의 표상이 존재했다. 더불어 여기서 한국문명은 세계 속에 유통될 수 있는 등가교환 가치가 전제되어 있었던 셈이다. 물론 한국문명을 가리킨 ‘동양의 희랍’이라는 표현 또한 그의 번역물들은 단순히 원본에 대한 동일한 반복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생성물에 보다 근접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게일의 기획이 지닌 역능, 원본과 번역본의 관계망, 그 효용성 자체를 폄하할 수는 없다. 이렇듯 게일이 생성시킨 한국문학 혹은 한국문학의 다양한 변주들은 원본을 보존하고자 한 그의 실천이었고, 그의 번역물을 볼 수 있는 오늘날 외국인/한국인에게 원본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렇듯 한국문학 작품에 대한 대응관계를 지닌 번역물과 번역관계의 지속적인 생성은 중국적으로 고전이자 원본의 존재를 상상하게 해준다. 이 점에서 원전에 대응되며 새롭게 생성된 이러한 번역물들은 원본이자 고전이라는 한국문학의 형상을 출현시킨 하나의 중요한 계기이자 동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⁷¹⁾

70)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이상현, 앞의 책, 2장을 참조 ; 더불어 서구와 한국의 번역적 관계망이 ‘유비의 관계’에서 ‘등가교환의 관계’로 전환되는 지점이 지닌 의미는 이상현의 같은 책, 3장(初出: 『근대 조선어·조선문학의 혼종적 기원 : 『조선인의 심의』(1947)에 내재된 세 줄기의 역사』, 『사이間SAI』 8,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0, 113-151면)을 함께 참조.

71) 이 진술은 오늘날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하지만 게일이 출판한 『춘향전』 영역본의 경우에도 이러한 효과는 분명히 존재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상현, 『『춘향전』의 번역과 민족성의 재현 : 이광수의 『춘향』(1925-1926)을 읽을 또 다른 문맥, 게일·호소이 하지메의 고소설 번역담론』, 앞의 책, 150-155면을 참조.

그의 생애에 있어서 황혼기라고 할 수 있는 1933년, 그가 『이규보 시문선집』 출판을 위해 보낸 서한문과 함께, 주목되는 자료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그가 1900년 한국여성의 심금을 울리는 작품이라고 소개한 바 있으며⁷²⁾, 1913년 효성이 깊은 딸이 축복을 받는 바를 보여주기 위한 작품이라고 소개했던 한국고소설이다. 1919년 번역본을 1933년 바스에서 다시 옮겨 놓은 <심청전 영역본>의 존재는 그의 번역본이 지니고 있는 전술했던 효용성과 사명 또한 한국고전이 지닌 가능성과 가치를 게일 본인이 잘 알고 있었다고 속삭여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한국의 한자라는 서기체계, 또한 한국 한문학을 수용하고 한국 고소설을 번역한 지난한 그의 여정을 암시해주기 때문이다.

	
1913년 3월 6일 서울에서 게일 남긴 〈심청전〉 줄거리 개관	〈심청전 영역본〉 첫면

72) J. S. Gale, "The Influence of China upon Korea,"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Royal Asiatic Society* 1, 1900, p. 16.

참고문헌

(1) 자료

- 『국외소재 한국 고문헌 수집 성과와 과제』, 국립중앙도서관, 2009.
- 『게일 유고(*James Scarth Gale Papers*)』(캐나다 토론토대 토마스피서 회귀본장서실).
- 金允經, 『朝鮮文字及語學史』, 朝鮮記念圖書出版館, 1938.
- 奇一, 「回顧四十年」, 『신민』26, 1927. 6.
- 유영식 편역, 「번역의 원칙」, 『착흔목자 : 게일의 삶과 선교』 2, 도서출판 진흥, 2013.
- 왕유, 박삼수 역주, 『왕유詩全集』, 현암사, 2008.
- 최남선, 「一日一件」, 『청춘』 3, 1914. 12. 6.
- 황호덕·이상현 옮김, 『개념과 역사, 근대 한국의 이중어사전』 2, 박문사, 2012.
- J. S. Gale, 장문평 옮김, 『코리안 스케치』, 현암사, 1977.
- J. S. Gale, 『鮮英對照大學(The Great Learning by Chung-ja)』, 朝鮮耶蘇敎書會, 1924.
- “Correspondence,” *The Korean Repository* III, 1896.
- J. S. Gale, “A Contrast,” *The Korea Mission Field*, 1909.
- _____, “A Few Words on Literature,” *The Korean Repository* II, 1895. 11.
- _____, “A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The Korea Mission Field*, 1924. 10.
- _____, “A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The Korea Mission Field*, 1927. 9.
- _____, “Korean Literature(2): Why Read Korean Literature?,” *The Korea Magazine* I, 1917. 8;

- _____, “The Influence of China upon Korea,”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Royal Asiatic Society* 1, 1900.
- _____, “The Korean Alphabet,”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IV(I), 1912.
- _____, “The Pagoda of Seoul,”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I(II), 1915.
- J. S. Gale trans., *The Cloud Dream of the Nine: A Korean novel, story of the times of the Tangs of China about 840 A.D.*, London: Daniel O'Connor, 1922.
- R. King & Park Sinae ed. *Score One for the Dancing Girl, and Other Selections from the Kimun ch'onghwa : A Story Collection from 19th Century Korea*,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16.

(2) 논저

- 김성철,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 서양인들의 한국문학 인식 과정에서 드러나는 서구 중심적 시각과 번역태도』, 『우리文學研究』 39, 우리문학회, 2013.
- 김승태, 『한말·일제 강점기 선교사 연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6.
- 류준필, 『동아시아의 자국학과 자국문학사 인식』, 소명, 2013.
- 부산대 고전번역학 센터 편, 『한국 고전번역학의 구성과 모색』 2, 점필재, 2015.
- 배수찬, 『세계화 시대의 인문학 책읽기』, 아포리아, 2015.
- 살바토레 세티스, 김운찬 옮김, 『고전의 미래: 우리에게 고전이란 무엇인가』, 길, 2009.
- 신상필·이상현, 『게일의 『靑坡劇談』 英譯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 이상현, 『게일의 한국고소설 번역과 그 통국가적 맥락』, *Comparative*

- Korean Studies* 22(1), 국제비교한국학회, 2014.
- _____, 『근대 조선어·조선문학의 혼종적 기원 : 『조선인의 심의』(1947)에 내재된 세 줄기의 역사』, 『사이間SAI』 8,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0.
- _____, 『한국 신화와 성경, 선교사들의 한국 신화 해석 : 개일의 성취론과 단군신화 인식의 전환』, 『비교문학』 58, 한국비교문학학회, 2012.
- _____, 『알렌 『백학선전』 영역본 연구』, *Comparative Korean Studies* 20, 국제비교한국학회, 2012.
- _____, 『『유몽천자』 소재 영미문학작품과 개일의 국한문체 번역실천』, 『서강인문논총』 42,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15.
- _____, 『이중어사전과 개념사 그리고 한국어문학: 개일 고전학을 읽을 근대 학술사적 문맥, ‘문화재 원형’ 개념의 형성과정과 한국어의 문화생태』, 『반교어문연구』 42, 반교어문학학회, 2016.
- _____, 『제국들의 조선학, 정전의 통국가적 구성과 유통 : 『天倪錄』, 『靑坡劇談』 소재 이야기의 재배치와 번역·재현된 ‘朝鮮』』, 『한국근대문학연구』 18, 한국근대문학학회, 2008.
- _____, 『『춘향전』의 번역과 민족성의 재현 : 이광수의 『춘향』(1925-1926)을 읽을 또 다른 문맥, 개일·호소이 하지메의 고소설 번역담론』, 『개념과 소통』 16, 한림과학원, 2015.
- _____, 『한 개신교선교사의 독서체험과 문화번역』, 『민족문학사연구』 58, 민족문학사연구소, 2015.
- _____, 『한글의 기원과 『훈민정음』의 흔적: 개일의 “The Korean Alphabet”(1912)에 새겨진 서양인 훈민정음 기원론의 역사』, 『국제어문』 72, 국제어문학학회, 2017.
- 이상현, 빈첸자 두루소, 『의명의 한국학자, 이익습(李益習, Yi Ik-seup)과 *The Korean Repository*誌의 ‘훈민정음 기원론’ 논쟁』, 『열상고전연구』 54, 열상고전연구회, 2016.
- 이상현, 이은령, 『19세기 말 고소설 유통의 전환과 ‘민족지’로서의 고소

- 설], 『비교문학』 59, 한국비교문학회, 2013.
- 이상현, 윤설희, 『주변부 고전의 번역과 횡단 1 - 외국인의 한국시가 담론 연구』, 역락, 2017.
- 이상현, 이진숙, 『『게일 유고』 소재 한국고전번역물(2) - 게일의 미간행 육필 <홍부전 영역본>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48, 열상고전연구회, 2015.
- _____, 『朝鮮筆景(Pen-picture of Old Korea(1912)) 소재 게일 영역시조의 창작연원과 ‘내지인의 관점’』, 『우리문학연구』 44, 우리문학회, 2014
- 이상현, 이진숙, 장정아, 『경판본 <홍부전>의 두 가지 번역지평』, 『열상고전연구』 47, 열상고전연구회, 2015.
- 이혜은, 『북미소재 한국고서에 관하여: 소장현황과 활용방안』, 『열상고전연구』 36, 열상고전연구회, 2012.
- 임형택, 『한국 근대의 “국문학”과 문학사: 1930년대 조윤제(趙潤濟)와 김태준(金台俊)의 조선문학연구』, 『민족문학사연구』 46, 민족문학사연구소, 2011.
- 황호덕, 이상현, 『개념과 역사 근대 한국의 이중어사전』 1, 박문사, 2012.
- M. Courant, 이희재 역, 『한국서지』, 일조각, 1997[1994].
- G. N. Evon, “J. S. Gale(1863-1937), Korean Buddhism, and the International Religious-Intellectual Context of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개항기 한국의 학술공화국을 말하다 14강』 프로시딩 자료집, 2017. 7. 10.
- R. King, “James Scarth Gale, Korean Literature in Hanmun, and Korean Books,”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편, 『해외 한국본 고문헌 자료의 탐색과 검토』, 삼경문화사, 2012.
- R. Rutt, *James Scarth Gale and his History of Korean People*, Seoul : the Royal Asiatic Society, 1972.
- _____, “Footprints of the wildgoose,” 『民族文化論叢：鷺山李殷相博士

古稀記念論文集』, 삼중당, 1973

Sonya Lee, "The Korean Collection in the Library of Congress,"
Journal of East Asian Libraries 142(1), 2007.

<Abstracts>

The Dream of Globalizing Korean Literature
100 years ago
- James Scarth Gale, a Protestant Missionary and
the Classical Literature of Korea

Lee, Sang-Hyu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ject of the protestant missionary, James Scarth Gale to globalize Korean literature. This paper focused on the traces left by Gale in the US Library of Congress in the sense that 'the project of globalizing Korean literature' itself is a historical event that happened at a certain period of time. Walking through the traces, this study tried to describe the history and scene that Gales project was placed in.

The old novels and Gale's letters kept in the US Library of Congress tell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Korean classical translations gathered in *James Scarth Gale Papers*, which are housed in Thomas Fisher Rare Book Library of Toronto University in Canada. Although it was an unfinished project that could not be completed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 it testifies to Gale's desire to spread the Korean civilization and Korean literature in the East to the world.

The old novels housed in the US Library of Congress were the original scripts of the translation of Gale's old novels from *James*

* Pusan National University

Scarth Gale Papers. In addition, they had the implications as a cultural asset that should be preserved and ‘the literature of the old Korea’ before modernization along with the texts written in Chinese letters. Regarding this, this study examined the basic motivation that Gale chose the plate version, not the printed version as its original script for translation and pursued to translate it as a literary work. It is a new approach of Gale, which recognized the Chinese tradition inherited in Korean culture including the old novels as the classical world that Korea shared in East Asia and as its unique civilization, rather than as something ‘Chinese and foreign’. This shift in perception was an important moment in his planning of globalizing his Korean literature. Gale’s letter in the US Library of Congress showed that the manuscripts in the form of booklets in *James Scarth Gale Papers* were translation that Gale prepared for publishing abroad. Although Gale’s project of glob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could eventually be regarded as an unfinished project, his project clearly shows his discovery of Korean civilization that is distinct from China and the possibility and future of Korean classics, which he called the Eastern Greece.

Key Words : James Scarth Gale, the project of globalizing Korean literature, *James Scarth Gale Paper*, US Library of Congress, Theory of Korean Literature, the theory on non-existence of Korean literature, the Eastern Greece, *The Cloud Dream of the Nine*

■ 논문접수 : 2017년 7월 20일

■ 심사완료 : 2017년 8월 19일

■ 게재확정 : 2017년 8월 21일